



자연과 꿈 No. 152 July-August 2015

고객 성공을 위한 인프라를 발명하는  
제일모직 리조트·건설부문 사외보

## 자연과 꿈



Cheil Industries Magazine  
No. 152 JULY · AUGUST 2015

### Wellbeing

#### Festival Pictorial

찌는 듯한 무더위를 단박에 날려버릴 캐리비안 베이의  
아침 찬 선물. 다양한 물놀이 아이템으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자!

#### Travel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헝가리 소도시로 여행을 떠나보자.

#### Extreme Ride

스릴감 넘치는 속도로 물놀이의 즐거움을 배가하는  
'메가 스톤'을 소개한다.

SAMSUNG 제일모직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메가 스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당신에게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가 선사하는  
절정의 여름 축제! '뽕야 뽕야' 물총을 쓰고 시원하게 물 폭탄을 맞는  
썸머 스피클래쉬 퍼레이드와 스릴 넘치는 메가 스튬까지!  
무더운 여름을 짜릿하게 보낼 수 있는 100만 가지 즐거움이  
가득한 에버랜드 속으로!

<b>TOPIC</b> : How to Enjoy Summer in Everland	
<b>시원한 여름, 기분 좋은 에버랜드 여름 축제 핫 이슈</b>	04
<b>IN ART</b> : Various Perspectives of Looking at the Sunflower	
<b>해바라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Hermann Hesse</b>	06
<b>PEOPLE</b> : Utopia Dreaming	
<b>책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상주의자, 한길사 김언호 대표</b>	08
<b>THE BOOK</b> : The Popular Travel Book	
<b>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자, 떠나요</b>	12
<b>TOGETHER</b> : Sharing Happiness, Calligraphy	
<b>사랑 한 획, 캘리그래피로 온기를 전하다</b>	14
<b>TRAVEL</b> : Traveling Hungary's Western Towns Full of Unique Charm and Calm	
<b>색깔 있는 매력과 평온을 발산하는, 헝가리 서부 소도시 여행</b>	16
<b>SPACE STORY</b> : CHEIL INDUSTRIES LANDSCAPE BUSINESS	
<b>화목하고 정겨운 삶의 터전, 모아 미래도 아파트 조경 현장</b>	22
<b>FESTIVAL PICTORIAL</b> : Ready for the Summer Splash?	
<b>짜릿한 여름을 즐기는 방법</b>	26
<b>ZOOM IN</b> : Let's Splash into Summer Now!	
<b>시원한 여름 축제 '에버랜드 썸머 스피클래쉬'</b>	38
<b>PHOTO ESSAY</b>	
<b>에버랜드가 전하는 여름의 절정</b>	40



**TOGETHER**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캘리그래피는 오롯이 그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으로 탄생한다. 제일모직 임직원들의  
온기가 담긴 캘리그래피 부채가 복지시설  
어르신들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그 따뜻한  
순간을 담아 보았다.



**TRAVEL**  
때론 작고 소박한 것, 낡고 오래된 것을 통해  
여행자들은 감동을 얻는다. 이런 것들에  
감동을 받는 여행자들은 가슴 설레게 하는  
여행 목적지 중 하나가 소도시들이다.  
헝가리 서부 벌라톤 호수 주변에 흠어진 보석  
같은 소도시를 소개한다.



**PHOTO ESSAY**  
캐리비안 베이에서 맛보는 상큼한 여름의 풍경.



**EXTREME RIDE**  
'메가 스튬'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 고공  
행진 중이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스릴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곧 메가 스튬에 탑승하자!



**FESTIVAL PICTORIAL**  
에메랄드빛 물, 이국적인 휴양지 무드, 슈퍼 어트랙션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의 짜릿한 라이딩까지.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캐리비안 베이에서 진정한 여름휴가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ZOOTOPIA GUINNESS**

폭폭 찌는 무더운 여름이 되면  
주토피아 동물들도 물속에서 더위를  
식히곤 한다. 그렇다면 주토피아의  
펠프스는 누구일까? 뒤뚱뒤뚱  
걸음걸이가 양성해 보여도, 누구보다  
몸집이 거대해 물에 뜨기나 할까  
걱정스러워도 수영 실력만큼은 뛰어난  
주토피아 친구들을 만나보자.

<b>EXTREME RIDE</b> : Mega Storm Hits Caribbean Bay	
<b>메가 스튬, 캐리비안 베이를 덮치다</b>	44
<b>THE ANIMAL</b> : Animal in Need Of Protection, Ursinus	
<b>지키자, 물개 박수 짹짹</b>	46
<b>THE PLANTS</b> : Victoria Cruziana	
<b>한 여름 연못을 장식하는 수련의 여왕, 빅토리아수련</b>	47
<b>ZOOTOPIA GUINNESS</b> : The Best Swimmer in Zootopia	
<b>수영을 제일 잘하는 동물은?</b>	48
<b>EXPERT'S COMMENT</b> : Cool Interior Tips for the Summer	
<b>보기만 해도 시원해! 여름 인테리어 Q &amp; A</b>	50
<b>DINING GUIDE</b> : Taste of Summer HOLLAND VILLAGE	
<b>극강의 여름 메뉴가 기다린다! 홀랜드 빌리지</b>	52
<b>ASK DR.</b> : Health and Recipe	
<b>건강에 관한 궁금증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b>	54
<b>SHOP GUIDE</b> : Wonderful Place NAVIO	
<b>물놀이 용품의 모든 것, 나비오</b>	58
<b>SMART TALK</b> : Cheil Industries Social Media	
<b>제일모직 소셜 미디어 &amp; 독자 참여 이벤트</b>	59
<b>CONGRATULATIONS</b> : Prize Winners	
<b>이벤트 당첨자 소식</b>	61
<b>PHOTO EVENT</b>	
<b>사진 이벤트 당첨자</b>	62

# HOW TO ENJOY SUMMER IN EVERLAND

시원한 여름, 기분 좋은 에버랜드  
여름 축제 핫 이슈



## Wild Time in Caribbean Bay, Mega Storm

캐리비안 베이의 새로운 어트랙션, 복합형 워터 슬라이드 '메가 스톰'

물 줄기로, 시설 줄기로, 그래서 놀기 줄기로 소문난 캐리비안 베이. 내년이면 개장 20주년을 맞이해서일까. 총 170억원을 투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형 워터 슬라이드 '메가 스톰'을 선보였다. 구불구불하게 상하로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코스에 이어 좌우 진자 운동으로 무중력상태를 체험하는 바이킹 코스까지 스릴 넘치는 라이딩이 단연 최고다. '슈퍼 어트랙션이 탄생했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무색할 정도. 특히 메가 스톰에는 수압으로 속도를 추진하는 기존의 워터 슬라이드와는 달리 자기 부상 열차의 원리인 '선형유도모터(LIM)' 장치를 적용해 급상승할 때 붙는 속도감이 몸서리칠 정도로 아주 빠르다. 지름 18m의 대형 깔때기 모양의 토네이도 코스는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그 안에서 튜브가 좌우로 움직이며 무중력상태로 사정없이 곤두박질쳐 아찔한 스릴감을 선사한다. 말이 필요 없다. 무더위는 물론 스트레스까지 단번에 싹 날리고 싶다면, 캐리비안 베이의 메가 스톰을 꼭 경험해보시길!

여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물 맞는 즐거움으로,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으로,  
다채로운 꽃들로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그리고 한여름 밤의 꿈을 완성시켜줄  
너무나 풍성한 에버랜드 여름 축제는  
절대 놓칠 수 없으니까!

Editor 유영은 Yoo Myung Eun

35,000송이 여름 꽃의 향연

'에버 블루밍 썸머'

여름 축제를 맞아 에버랜드는 다양한 여름 꽃을 활용한 테마 가든 '에버 블루밍 썸머'를 새롭게 선보였다. 에버 블루밍 썸머는 여름에도 풍성한 꽃이 가득하다는 뜻으로, 100여 종 35,000송이의 다양한 여름 꽃을 '사랑'을 주제로 한 4개의 테마 가든에 전시했다. 4개의 테마 가든은 물의 요정을 주제로 한 화려한 양수국꽃 등의 수생식물이 있는 '넵프 가든', 꽃이 굽이치며 연속적으로 흐르는 듯한 경관이 펼쳐지는 '썸머 웨이브 가든', 달빛 요정이 사랑을 이어주는 스토리로 꾸민 이색적인 '썸머 컨테이너 가든', 부케를 떠올리게 하는 하얀 수국꽃으로 가득한 '프로포즈 가든'으로 구성돼 있다. 테마 가든 내에는 꽃 전시 외에도 소원 동전 던지기, 사랑의 주문 외치기, 프로포즈 포토 존 등 참여형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 Ever Blooming Summer



## Like a Sniper, Bang Bang Bang Jack's Splash Parade

시원한 물줄기로 더위를 식하자,

에버랜드 '책의 스플래쉬 퍼레이드'

에버랜드 여름 축제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단연 물 맞는 재미가 가득한 스플래쉬 퍼레이드이다. 그런데 올해에는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에버랜드의 대표 캐릭터 레니와 라라의 장난꾸러기 친구인 책과 도나를 주인공으로 퍼레이드를 새단장한 것. 이름도 '책의 스플래쉬 퍼레이드'이다. 책의 스플래쉬 퍼레이드는 총 6대의 플로트와 40대의 물대포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대며 매일 3회씩 펼쳐진다. 특히 올해엔 관람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콘텐츠에 힘을 실었는데, 퍼레이드 피날레에 장난꾸러기 캐릭터인 책과 도나, 그 외 연기자들이 다시 등장해 약 5분 동안 관람객들과 신나는 물총 싸움을 벌인다.



스마트폰으로 더욱 편리하게 즐기는

캐리비안 베이 모바일 앱

캐리비안 베이이 국내 워터파크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캐리비안 베이(이하 캐비 앱)'을 출시했다. 캐비 앱은 크게 '방문전'과 '이용중' 모드로 나뉘는데, '방문전' 모드에서는 이용 요금, 제휴 카드 등의 할인 정보, 운영 시간, 현장 날씨 등의 기본 정보와 여유 있는 주차장이나 나의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용중' 모드에서는 캐리비안 베이 내 모든 시설의 운영 시간과 총 29개의 캐리비안 베이 어트랙션 중 메가 스톰, 아쿠아루프, 타워부메랑고 등 10종의 인기 기종 대기 시간을 체크할 수 있다. 또 파도풀의 파도 가동 시간, 레스토랑 정보, 취향에 맞는 캐리비안 베이 추천 코스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 예약 시스템과 연동해 카바나 빌리지와 비치 체어 예약 기능을 추가해 캐리비안 베이 이용이 더욱 간편해졌다. 캐비 앱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캐리비안 베이'를 검색한 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Lead, We'll Follow Carribean Bay App



# VARIOUS PERSPECTIVES OF LOOKING AT THE SUNFLOWER

해바라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Hermann Hesse**

Editor 김협 Kim Hyup  
Cooperation Bon Davinci 1661-0553

예술가에게 있어 고통이란 창작의 원천이자 자아 성찰의 방편이며 혹독한 단련의 일부분이다.  
성공한 작가였으나 평생 자신을 따라다닌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나이 마흔에 붓을 든 헤르만 헤세.  
이제 그를 작가가 아닌 화가 헤르만 헤세로 찬찬히 살펴볼 시간이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인생의 어느 한순간이건, 자신에게 이런 반문을 던져본 적 없는 이가 있을까? 지나고 보면 그저 그런, 어쩌면 잠시 스치는 바람 같은 것일지언정 그 순간엔 처절하게 아프거나, 미치도록 괴롭거나, 모든 걸 쏟아내듯 울어야 하는 순간 같은 참나 말이다. <데미안>의 프롤로그를 여는 헤르만 헤세의 단문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에 매진한 그의 철학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지침 같은 명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고, 그의 필적을 따라가며 진지하게 자아를 모색했다. 사실 이번 전시회를 만나기 전까지 헤세가 그토록 자신의 삶에 처절하게 저항한 문학가임을 몰랐다. 그의 책을 읽으며 마음을 울리는 글귀마다 밑줄을 긋고, 필사를 하면서도 그가 그 문장을 토해내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외면했다고 써야 옳은 일이다. 나는, 혹은 우리는 그의 고단한 삶에 기대 위안을 얻은 축복받은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 한다. 나이 마흔에 붓을 들고 수채화를 그리며 글로 다 쓰지 못한, 상처받은 자신의 영혼에 위안과 선물을 안긴 것이다. 이 작품 ‘해바라기가 있는 정원’에 유독 마음이 끌린 이유는 에디터 또한 해바라기를 심히 좋아하기 때문이다. 해바라기를 흠모한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불타듯 태양을 향해 온몸과 마음을 다해 기꺼이 받아들이 자세를 취하는 열정 때문이리라.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접한 함형수 시인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을 읽고 경험한 강렬함과는 상반되는 평온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색감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며 뜨겁고 격정적인 그의 삶을 떠올리든, 영화 <닥터 지바고> 속 끝없이 이어지던 셋노란 해바라기밭을 추억하든, 당신의 기억 속 어느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해바라기와 헤세의 해바라기를 대입해보길 권한다. 태양을 품은 해바라기는 당신의 마음 한복판에 뜨거운 불을 지퍼 식었던 열정을 되살려줄 것이다. 이외에도 헤세의 삶과 명작을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신개념 컨버전스 아트 전시인 <헤세와 그림들 展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5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1·2부로 나뉘어 열린다.

**PROFILE** 1887년 독일에서 태어나 1962년 스위스 몬타놀라에서 생을 마감한 헤르만 헤세는 ‘20세기의 문명 비판서’라 할 수 있는 미래 소설 <유리알유희(Das Glasperlenspiel)>로 194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나이 마흔에 시작한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아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아닌 화가 헤세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 UTOPIA DREAMING

책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상주의자,  
한길사 김언호 대표

Editor 강사라 Kang Sa Rah  
Photographer 김수 Kim Su

40년의 세월 동안 3천여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고, 문화예술의 향기로 넘실대는 유일무이의 출판도시와 예술마을을 만들었으며, 누구에게나 24시간 무료로 개방된 방대한 규모의 독서공간을 사람들에게 선사했다. 그리고 믿는다. 책으로 이 세상을 보다 바르고 정의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책으로 구축한 유토피아,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웰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하는 이상주의자. 한길사 김언호 대표다.

##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독서공간, 지혜의 숲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매혹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념비적인 공간 하나가 파주에 들어섰다. 높이 8m의 거대한 서가가 로비에서 복도까지 구석구석 빈틈없이 이어지는데 그 길이만 무려 3km에 이르고, 개인 기증자들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출판사, 심지어 도서관에서 기증한 그야말로 숫자조차 헤아리기 힘든 수많은 도서들이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서가를 촘촘히 메운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카페까지 갖춘 그곳에서 사람들은 엄숙과 침묵을 강요하는 일반도서관에서와는 달리 편안한 마음으로 담소를 나누며 목을 축이거나 '인증샷'을 찍을 수도, 혹은 홀로 조용히 독서에 빠져들 수도 있다. 한 마디로 나무 대신 책이 들어선 휴양림과도 같은 공간. 바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에 자리한 '지혜의 숲' 이야기다. 그리고 이 국내 유일의 독특한 독서 공간을 기획하고 탄생시킨 주인공이 있으니, 바로 한길사 대표이자 현재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출판인 김언호다.

##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책의 장인

한길사. '큰길', '바른 길', '마당', '광장' 등의 의미를 지닌 이 출판사가 창립된 지도 어느덧 40년, 이는 곧 김언호 대표가 출판인으로 살아온 시간이기도 하다. 그만큼으로도 장구한 세월이지만 처음부터 출판인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니다. 1968년 동아일보사에 입사해 기자로 활동하길 7년, 그러던 중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책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1976년 자택에 작은 출판사 사무실을 꾸렸다. 한길사의 시작이다. 그 시작은 조출했지만 성과는 창대했다. 1977년 '오늘의 사상신서'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길사에서 선보인 책만 무려 3천여 권에 이르니 말이다. 1970~80년대에는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6권, <함석헌 전집> 전 20권과 <한국사회연구총서>, 무크지 <한국사회연구>, 계간지 <오늘의 책>, 월간 <사회와 사상> 등 주로 한국사에 집중한 인문사회과학서 시리즈를 펴냈고, 1990년대에 출간한 최명희의 <혼불>과 시모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전 22권으로 구성된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 등은 대중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았다. 이외에도 한길그레이트북스, 한길로로로 등 사회과학에서 인문학, 심지어

출판계의 활동가로 유명한 김언호 대표지만 책을 만들에 있어서만은 타협을 불허하는 장인 정신과 고집의 소유자다. 내년에는 한길사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역사가와 석학들의 인문과학서 시리즈를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1

어린이책에 이르는 수많은 시리즈를 선보여왔지만 이 많은 책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뚜렷한 목표의식이자 이상이 존재한다. 바로 시대정신을 책에 담아낸다는 것. “한길사가 펴낸 책들은 지성과 이성의 공화국을 꿈꾸는 현인들의 성찰과 실천의 기록입니다. 시대의 정신사를 담고 있기에 그만큼 치열한 고민과 손질을 쏟아 부은 결과물들이기도 하고요.”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답게 사는 사회에 대한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망. 그 해답이 책과 인문학 안에 들어있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야말로 김언호 대표가 책을 만들고 출판인으로 살아온 절대적인 이유다.

####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이상향의 열쇠, 책 속에 있다

책으로 유토피아를 일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김언호 대표의 답은 ‘Yes’다. 그가 단지 양질의 책들을

만들어내는 출판인에 머물지 않고 ‘독서문화운동가’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온 것도 그러한 믿음에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더불어 도시 단위의 출판공동체를 기획하며 오늘날 파주출판도시의 기초를 다진 것도, 1990년대 헤이리 예술마을의 구상과 건설에 참여해 파주 일대에 문화 예술의 장을 마련한

인문학은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적 지식이자 창조적 상상력의 밑거름이며, 창조적 상상력은 지속적인 독서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역설하는 김언호 대표. 책과 독서를 통해 평화롭고 균형잡힌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은 오늘날의 김언호를 존재하게 한 근원적인 힘이다.

1

1, 2  
방대한 도서 자료로 파주 시민의 쉼터로 자리잡고 있는 ‘지혜의 숲’.

3  
엄청난 분량의 장서들로 가득한 김언호 대표의 집무실. 뒤편으로 김언호 대표의 가족 사진과 한길사와 유독 특별한 인연을 맺은 민권운동가 함석헌 선생의 초상 사진 등이 눈에 띈다.



2



3

것도 결국은 책을 읽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민사회의 장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한 사회가 평화롭고 민주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지혜의 숲’도 그 연장선상에서 태어난 결과물이다. “지혜의 숲을 방문하는 분들이 하루 평균 오백 명 정도고 주말이면 천 오백 명에 이릅니다. 아기 엄마들도 도서관에서와는 달리 아기가 책 속에서 편히 놀게 해줄 수 있어 너무 좋아합니다. 한 마디로 이곳은 책읽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에요. 누구나 마음껏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간 제가 그간 벌여온 일들 중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지인들도 있어요. 하하.” 최근 중앙 선데이에서 ‘세계책방기행’이라는 페이지를 연재하는 이유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독서 문화에 작은 불씨나마 보태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서점은 지식인과 교양인들의 살롱 역할을 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민사회입니다. 그런데 책의 온라인 판매가 주류가 되면서 서점들은 급속도로 몰락 중이고, 이젠 곧 한 나라의 정신이 무너져 내린다는 걸 의미해요.” 기사 집필을 위해 일본, 중국, 유럽, 남미 등 전 세계의 명물 서점가를 두 발로 직접 누비며 독자들에게 서점의 매력과 의미를 전달하고자 동분서주하는 그의 열정은 책이 필요할 때면 당연하다는 듯 온라인의 장바구니 버튼을 누르곤 하던 그간의 독서 습관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동네 어귀의 작은 단골서점에 들어가 이책 저책을 들추어보다 고심 끝에 고른 한 권의 책, 그렇게 쌓인 책들로 조금씩 채워져 가던 책장... 그 작지만 소중한 추억과 교류의 기억을 단지 ‘시대적 흐름’과 ‘편의’라는 미명 하에 폐기처분시킨다는 건 과연 옳은 일일까.

#### 몽상가의 웰빙법

김언호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몽상가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불가능에 가까워보였던, 게다가 너무나 많은 현실적 장벽과 난점들로 가득했던 그 모든 프로젝트들을 모두 실현시켜내고야 말았다는 사실이다. 대담한 행동력과 기민한 실천력을 가진 몽상가에게 꿈은 그저 꿈에 그치지 않는다는, 단순하지만 경이로운 진리가 김언호 대표를 보고 있노라면 새삼 확인된다.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재기발랄한 몽상가이자 아이디어뱅크인 김언호 대표에겐 이처럼 언젠가 현실로 이루기위해 준비 중인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지금 기획 중인 일 중 ‘숲 속의 책읽는 마을’을 만들자라는 것도 있어요. 숲 속에 이삼십 개의 작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책을 가득 채워 놓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방문객들은 애들을 데리고 가서 책도 읽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잠도 자면서 평화롭게 쉴 수 있죠. 마을 중앙에는 조금 큰 집이 하나 있어서 저녁마다 작가들이 낭독회도 하고 방문객들끼리 토론도 벌이고요. 이런 게 바로 힐링이고 정신적인 웰빙 아니겠습니까?” 현재 사단법인도 만들어 두었는데 아직 비용 문제로 본격적인 시작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출판경기가 회복되면 꼭 해보고자 하는 프로젝트란다. 제주도 바닷가에 작은 책방들을 지을 계획도 하고 있다. “제주도에 가보면 돌레길이란 바닷가든 온통 호텔이나 리조트 뿐이라 별로 들어가보고 싶은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착안한 게 바닷가에 외로이 선 책방입니다. 아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정신의 웰빙은 결국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지론을 가진 김언호 대표에게, 책과 자연이 결합된 쉼터는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꼭 일구고 싶은 또 하나의 유토피아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책장을 넘기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언젠나 자신의 꿈은 반드시 현실로 옮겨온 우리 시대의 가장 실천적인 몽상가, 김언호 대표가 꾸는 꿈이기에.



# THE POPULAR TRAVEL BOOK

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자, 떠나요

Editor 유명은 Yoo Myung Eun  
Photographer 김건희 Kim Gun Hee

여행은 '항상 떠나고 싶다'이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면 '계기'가 필요하다. 식욕을 돋워주는 애피타이저처럼 말이다. 이 책들이 여행을 부추기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5권의 책을 준비했다. 책장을 넘기며 함께 여행하라. 마지막 책장까지 넘기고 책을 덮고 나면 내 손에 여행 티켓이 들려 있을 지도 모르겠다.

## 한 걸음, 한 걸음

장예진, 강은희 저 / 북로그컴퍼니

결혼 전 다리 때문에 큰 수술을 받은 엄마에게 임신은 무리였다. 병원마다 유산을 권했지만 엄마는 딸을 낳았다. 출산 후 엄마는 염증 재발로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했고 목발 없이는 걷는 게 힘들었다. 어릴 때부터 아픈 엄마를 잘 보살핀 딸, 하지만 엄마가 전통제 과다 복용과 신경안정제 남용으로 악물의존증에 빠지자 둘 사이의 전쟁이 시작됐다. 엄마와 딸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서로에게 지쳐갔다. 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 앞에서 결국 딸은 이성을 잃고 그 약을 모두 입에 털어넣었다. 정신을 잃은 딸을 업고 응급실로 달려가며 엄마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 후, 둘은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 엄마의 단짝 친구가 사는 독일을 베이스캠프로 삼고 런던과 파리를 돌아보는 여정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유럽 여행기는 특별하다. 남들처럼 무언가를 부지런히 보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런던은 엄마와 딸이 함께, 파리는 딸 혼자 여행했다. 모녀가 처음으로 떨어져 지낸 그 며칠 동안 둘은 세상에서 가장 깊이 서로를 생각했다. 딸은 엄마가 평생 받아왔을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했고, 엄마는 딸이 어릴 때부터 짊어져야 했던 '아픈 엄마'라는 짐의 무게를 헤아리며 진심으로 미안해 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엄마와 딸의 관계 변화, 여행하는 동안 서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마음의 여정에 더 주목하게 되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면 엄마를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울지도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은 특별하니까...

## 332일 자전거여행

김미영 저 / 생각물담는집

프랑스 남자와 결혼한 저자는 신혼여행으로 자전거 실크로드 횡단을 계획했다. 남자가 태어나고 자란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액상프로방스를 떠나 여자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 경상남도 밀양의 아버지 집까지! 신혼의 달콤함과 땀내 가득한 자전거 여행이라니? 그래서 더욱 낭만적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여행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곳들을 찾아가 인증 샷을 찍고 오는 것과는 다른 길이다. 남들이 다 가는 유명 관광지에 가서도 이들이 보고 만난 것은 그곳의 또 다른 삶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흔한 관광지와 유명한 곳에 대한 설명이 줄줄이 이어지지 않는다. 모든 글이 이들이 두 발로 페달을 밟으며 체험한 곳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들처럼 자전거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자전거 구입부터 캠핑 관련 물품 및 도구, 지도 및 GPS 정보까지 책에 덧붙였다.

## 착한 성장 여행

박선아 저 / 남만판다

"고급 리조트가 세워지고 많은 관광객이 필리핀에 온다는데 왜 필리핀은 여전히 가난할까?"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피하지 않고 질문에 똑바로 마주했고 답을 얻었다.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 '착한 여행'을 떠났다. 여행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발리, 라오스, 캄보디아로 택했다. 모두 '가난'이라는 현실의 무게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연을 지켜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들이다. 현지인과 마주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민박, 게스트 하우스를 즐겨 이용하며 여행지의 생활 문화를 밀접하게 체험한 여정을 책에 담았다. 여행은 다소 불편했지만 남다른 가치가 있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딸아이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세상을, 전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함께 실천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딸아이는 엄마의 바람처럼 여행지의 낯선 역사와 환경, 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여행을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들을 통해 행복을 안고 여행에서 돌아왔을 것이다.

## 빼빼가족, 버스 몰고 세계 여행

빼빼가족 저 / 북로그컴퍼니

한 가족의 몸매가 하도 빼빼해서 아예 '빼빼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빠는 회사일로 바빴고 엄마는 집안일에 힘들었고 세 아이는 새벽 밥 먹으며 학교에 다니느라 고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애들아, 우리 아파트 팔고 세계 여행 가자!" 그렇게 해서 빼빼 가족은 진짜로 13.2m<sup>2</sup> 남짓한 미니버스를 몰고 세계 여행을 떠났다.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끝 대한민국 간절곶에서 서쪽 끝 포르투갈 호카곶까지 총 25개국, 163개 도시를 달려 350일간의 여행기를 완성했다. 여행 에피소드 외에도 포토 에세이와 여행 그림까지 실려 있어 보는 재미가 더하다. 더불어 캠핑카로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캠핑카 개조하는 방법과 빼빼 가족이 그동안 남나든 국경 정보, 나라별 유류비와 여행 시 꼭 필요한 준비물까지 여행에서 궁금해 할 만한 모든 것이 빠짐없이 실려 있다.

## 여행은 아빠의 방학숙제다

강성률 저 / 디앤씨박스

아빠가 쓰고 중학생 아들이 사진을 찍은 미국 여행기를 책으로 냈다. 아빠와 아들의 합작인 것만으로도 훈훈한 책이다. 영화평론가이자 교수인 저자는 안식년을 맞아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자 1년간 미국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한다. 가급적 여행을 많이 해서 좋은 추억을 남겨주자는 아빠의 계획 아래 주말마다 미국 전역을 여행했다. 그런데 아빠는 옐로 스톤, 그랜드캐니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을 여행하고 싶지만 아들은 수족관, 디즈니랜드, 야구장, 크루즈 등을 가고 싶어 한다.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기 쉽지 않지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부자 간의 모습이 몽클하다. 아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카메라 렌즈에 담은 미국 여행지의 모습, 그리고 평론가인 아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담은 영화, 교육, 가족을 주제로 한 에세이까지... 볼거리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다.





# SHARING HAPPINESS, CALLIGRAPHY

사랑한 획,  
캘리그라피로 온기를 전하다

독특한 글씨체로 시선을 사로잡는 캘리그라피.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캘리그라피는  
오롯이 그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으로 탄생한다. 제일모직 임직원들의 온기가 담긴 캘리그라피 부채가  
복지시설 어르신들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따뜻한 순간을 담아보았다.

Editor 최정원 Choi Jung Won, Writer 이미진 Lee Mi Jin  
Photographer 하우중 Ha Woo Jong



1

##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부채 만들기

제일모직 임직원 100명은 지난 6월, 결연을 맺은 복지시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부채 만들기를 진행했다. 취미도 배우고 봉사 활동도 할 수 있는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나눔 아카데미'를 통해서다. 나눔 아카데미는 그동안 학용품 주머니 만들기, 아기 옷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9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과 용인 리조트지원센터에서 캘리그라피 부채 만들기를 실시했다. 이번 체험에는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는 임직원, 평소 궁금했던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어 신청했다는 임직원 등 참가 사연도 다양했다. 본격적인 캘리그라피 활동이 시작되기 전, 먼저 냅킨 아트를 진행했다. 냅킨 아트란 유럽 왕실에서 취미로 즐겨온 생활 공예로, 낡은 가구를 리폼하거나 유리병, 소품 등에 예쁜 냅킨 그림을 찢어 붙인 다음 채색하는 공예다. 임직원들은 섬세한 손길로 냅킨에 그려진 분홍, 보라색 꽃들을 손으로 찢어 부채에 붙여 나갔다. 얇은 냅킨의 특성상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내기 위해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 필요하기에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임직원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 마음을 담은 글씨

부채가 마르는 동안 캘리그라피 강사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마치 한글을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글씨체를 연습하는 임직원들의 눈빛이 더없이 경건했다. “캘리그라피에 정답은 없어요. 대개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시는데, 긴장하면 글씨가 더 안 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담아 표현하는 것이 가장 나은 작품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글씨체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느꼈던 임직원들은 강사의 멘트에 다시 한 번 힘을 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는데 집중했다. 모음을 위아래로 길게 그리거나, 꽃 모양과 하트 등을

그려 넣기도 하고 물로 글씨를 번지게 해 색다른 느낌을 내는 등 저마다 어르신들께 전하고 싶은 문구를 부채에 적어 나갔다. ‘참 좋은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 등 각자의 느낌을 담은 따뜻한 메시지가 술술 적혀 나왔다. 정성 들여 완성한 부채 100개는 6월 초 제일모직의 결연 봉사 기관인 약수노인종합복지관과 용인노인요양원의 어르신들께 전달되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로 몸도 마음도 축 처지는 이맘때, 임직원들이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부채가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는 사랑의 선물로 기억되길 바란다.



2

3



# TRAVELING HUNGARY'S WESTERN TOWNS FULL OF UNIQUE CHARM AND CALM

색깔 있는 매력과 평온을 발산하는,  
헝가리 서부 소도시 여행

Writing • Photographer 이병학 Lee Byeong Hak <한겨레> 문화부 선임기자

Translation 사은영 Sa Eun Young

때론 작고 소박한 것, 낡고 오래된 것을 통해 여행자들은 감동을 얻는다. 웅장한 경관, 화려한 볼거리가 여행자들을 흥분시킨다면, 이런 소소한 것들은 심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대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해준다. 이런 것들에 감동받는 여행자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여행 목적지 중 하나가 오래되고 작고 예쁜 마을, 이른바 소도시들이다. 오랜 세월 주민들이 깃들여 사는 동안 닳아고 다듬어져 더욱 색깔 있는 매력을 발산하는 곳들이다. 이런 마을들이야말로 여행자의 경직된 심신을 매만지고 풀어주는 힐링 여행지라 할 만하다. 느릿느릿 거닐며 골목마다 깔린 보석들에 빠져드는 동안, 지친 몸도 강팍했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게 될 터이다. 유럽 중동부, 도나우 강 중류에 자리 잡은 헝가리에도 유서 깊고 아름다운 소도시가 즐비하다. 헝가리 서부 벌러톤 호수 주변에 흩어진 보석 같은 소도시들로 간다.

Often at times it is the small, simple and old stuff that touch the hearts of travelers. While magnificent scenery and impressive sights may excite, these smaller aspects calm the body and soul for deeper observation and appreciation. A travel destination that thrills tourists who are inspired by such places would be old, small and picturesque villages or tiny towns. These are spots that give off a distinct charm polished over the years by villagers and there is no better healing place to relieve a stressed-out traveler. Strolling along the alleys captivated by the various sights restores weary hearts and bodies. Hungary, located in East-Central Europe and the middle of Danube River, is lined with beautiful and historic towns. Let's take a look around these small towns that are like gems scattered around Lake Balaton in western Hungary.





1

헝가리 분지를 덮은 광활한 밭의 정체

불거리 많은 유적 도시인 수도 부다페스트를 제쳐놓고 헝가리 평원을 오가며 국내에 비교적 덜 알려진 색깔 있는 도시들을 찾았다. 소도시들을 찾아가는 길에 만난 가장 눈길 끄는 경관이 광활한 평원에 깔린 옥수수밭과 해바라기밭이었다. 그 행렬 너머로 다시 갈색 밭과 검은색 밭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갈색 밭과 검은색 밭은 뭘까. 가이드가 말했다. “옥수수밭이 시들면 갈색이 되고, 해바라기밭이 시들면 검정색이 된다.” 언덕들 사이로 키다리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이 기다렸고, 숲들 사이에 유서 깊은 작은 마을들이 깃들어 있었다. 천년 수도원과 백년 숲길을 간직한 마을 지르츠(Zirc), 언덕 위의 옛 성채와 마상무예 경기로 이름난 쉬메그(Sumeg), 쪽배 타고 석회동굴을 탐방할 수 있는 터폴차(Tapolca), 그리고 벌러톤 호수 전망이 빼어난 호반 도시 티허니(Tihany) 등 매력적인 소도시들이다. 먼저 베스프렘부터 둘러보자. 9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도시로 7개의 언덕에 옛 거리가 형성돼 있다. 거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세의 모습을 많이 간직한 곳이 시청이 자리 잡은 언덕의 성채 거리다. 이곳에 헝가리 초대 국왕인 이슈트반 1세와 왕비 기셀라가 살던 성(뒤에 주교관으로 사용)과 기셀라 왕비가 결혼 때 축성을 받은 성당, 페스트 퇴치 기념탑, 그리고 1938년 초대 국왕 사후 900주년을 기념해 세웠다는 이슈트반·기셀라상이 있다. 여행자들이 오래 머물며 주변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 장소가 이슈트반·기셀라상 옆이다. 여기서 바라보는 베네딕트 언덕을 비롯한 시내 전망이 빼어나다.

Vast fields covering the Hungarian basin

Leaving Budapest behind, the capital city with its many historic sites and attractions, I traveled to the Hungarian plains to reach unique towns relatively less familiar in Korea. While on my way there, a sight that particularly caught my attention was the wide expanse of corn and sunflower fields covering the broad plains. These fields were followed by an endless stretch of brown and black fields. I naturally wondered about these colored fields. My guide informed me that withered corn crops turn brown, while withered sunflowers turn black. Hidden along the hills were dense forests thickly lined with tall trees, and nestled in between these hills were several historic towns. These charming small towns included Zirc, known for its thousand-year-old abbey and hundred-year-old woodland path; hilltop town Sumeg famous for its fortress and knight tournaments; Tapolca, the town that offers boat explorations through a limestone cave; and Tihany, the lake town presenting a fantastic view of Lake Balaton. First, let's take a look around Veszprem, a town that began to develop in the ninth century. The town's old roads are formed around seven hills. It is home to the castle of Hungary's first King Stephen

(Istvan) I and Queen Gisella (later used as the bishop's residence), the cathedral where Queen Gisella was consecrated during her wedding ceremony, the plague monument and the statues of King Stephen I and Queen Gisella that were raised in 1938 for the 900th anniversary since the death of the founding king. A place where travelers spend a fair bit of time enjoying the sights and taking pictures is next to the statues of the founding king and queen, as it unfolds a stunning view of St Benedict Hill and the whole city.

헝가리 최대 호수 벌러톤호 풍광이 한눈에, 티허니

헝가리의 최대 호수 벌러톤호는 헝가리 서부 중앙에 동서로 길게 누워 있다. 2만5000년 전 형성된 벌러톤호를 두고 헝가리인들은 ‘헝가리 텐게르(바다)’라고 부르길 좋아한다. 영롱하고 투명한 물이 찰싹이는 호숫가에 서서 바라보면 길이 80km, 너비 10km, 평균 수심 4m의 이 얇은 호수가 영락없는 바다처럼 보인다. 언뜻 내륙으로 깊이 파고든 만처럼 보이기도 한다. 경찰 순시선을 제외하곤 무동력 배만 허용되는 청정 민물호수다. 벌러톤호 북쪽 연안 중앙에 튀어나온 작은 반도에는 인구 1,200명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 티허니가 자리 잡고 있다. 11세기에 처음 건축된 베네딕트 성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들어선 반도 전체가 역사보호지구로 지정돼 있다. 티허니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조용하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조용한 마을’ 티허니의 고색창연한 골목엔 늘 여행객이 붐빈다. 여행객의 발길이 가장 몰리는 곳은 벌러톤 호수 풍경이 근사하게 펼쳐지는 베네딕트 성당 옆 공원이다. 이곳에서는 흰 돛을 올린 크고 작은 요트가 자욱하게 깔린 광활한 호수가 내려다보인다.

- 1  
헝가리평원 해바라기밭
- 2  
베스프렘 베네딕트 언덕
- 3  
티허니 베네딕트 수도원



2



3



Beautiful view of Lake Balaton at Tihany

Lake Balaton, the largest lake in Hungary, stretches broadly from east to west in the central western part of the country. Formed 25,000 years ago, it is known among locals as the Hungarian Sea. When looking on by the transparent water slapping against the shore, the shallow lake, around four meters deep, 80km long and 10km wide, very much resembles a sea of water. In some ways, it also looks like a gulf in the inland. The lake holds clean, fresh water that allows only non-motor boats, with the exception of law-enforcement patrol boats.

On the north coast of Lake Balaton is a small peninsula, where there is a tiny, picturesque town called Tihany with a population of 1,200. This entire peninsula, with 11th century St. Benedict Cathedral at the heart of the town, has been designated as a historic protected area. Tihany means “quiet” in Latin. However, the time-honored alleys of this “quiet town” are always bustling with travelers. The place that draws the most tourists is the park next to St. Benedict Cathedral where there unfolds a spectacular view of Lake Balaton. The park presents a scenic view of the vast lake dotted with yachts of all sizes adorning their white sails.

옛 성당과 어우러진 100년 마을 숲, 지르츠

베스프렘 북쪽에 자리 잡은 지르츠는 인구 7,000명의 소도시다. 12세기 성 베르나르가 헝가리의 첫 시토회 성당을 세운 도시로 유명하다. 시토회란 가톨릭 개혁 수도회의 한 갈래로, 엄격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성직자 교육 활동을 주로 해온 종파다. 지르츠 거리에서 중세 건축물이나 옛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꼭 둘러볼 만한 곳이 마을과 성당을 끼고 펼쳐진 19세기부터 가꿔온 아름다운 숲(지르츠 어르보레툼 공원)이다. 아담한 호수가 포함된 19헥타르의 울창한 숲에 아름다리 소나무류 등 침엽수와 왕버들 등의 활엽수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세계 3대 명품 도자기 생산지라는 헤렌드 도자기 공장을 거쳐 베스프렘 주 서쪽의 고도 쉬메그에 닿았다. 쉬메그는 높이 270m의 언덕 위에 세워진 멋들어진 성이 돋보이는 소도시다. 이 쉬메그 성은 13세기 왕 벨러 4세가 쌓은 것이다. 16세기 튀르크족의 침입 때 베스프렘의



주교구가 이곳으로 전란을 피해 이전해 오면서 도시가 발달했다. 헝가리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이 성은, 밑에서 올려다봐도 위에서 거리를 내려다봐도 한 폭의 그림이 되는 아름다운 성이다. 인기를 끄는 건 쉬메그성 밑에서 매주 수·토요일(6~8월은 매일) 벌어지는 마상무예 경기다. 헝가리 전통 무술인 말 타고 달리며 활쏘기, 창던지기, 창과 방패의 대결 등을 지켜볼 수 있다. 경기를 본 뒤엔 중세식 저녁 식사가 기다린다. 기다란 동굴 안의 어두운 식당에서 40도가 넘는 독주 펄린카를 곁들여, 포크와 나이프 없이 숟가락과 손만으로 수프와 빵, 거위 다리 구이 등을 먹는다.

Century-old woodland and age-old cathedral at Zirc

Zirc is a small town located north of Veszprem with a population of 7,000. It is well-known as the town where St. Bernard built Hungary's first Cistercian abbey in the 12th century. The Cistercian monastery is one sect of the Catholic reform and it generally served to educate monks in observing strict lives of faith. It is hard to encounter medieval buildings or old architecture on the streets of Zirc, but a place that must be visited is the Zirc Arboretum Park, a beautiful forest surrounding the town and abbey that has been tended from the 19th century. This thick forest spreads over 19 hectares, including a small lake, and is densely lined with broad-leaf trees like the willow tree and needle-leaf trees including the large pine tree. After looking around Herend factory, the place that manufactures one of the world's top three earthenware pottery, the next stop was Sumeg in the highlands of western Veszprem. This small town has an impressive castle atop a 270 meter-high hill that was built by King Bela IV in the 13th century. The town developed when it became home to the seat of the Bishop of Veszprem during the Turkish invasion in the 16th century. As the largest single castle in Hungary, it is a beautiful structure that presents a breathtaking view whether when looking up from below or looking over the city from the top. A popular attraction here is the knight match, which is held every Wednesday and Saturday (daily from June to August) below the Sumeg castle. It offers a show of

**TIP** 여행 정보

인천공항-헝가리 부다페스트 직항편은 없고, 카타르 도하 등 경유편을 타야 한다. 부다페스트 중앙역에서 베스프렘까지는 열차로 1시간 30분 걸린다. 부다페스트에서 베스프렘까지 하루 4회 왕복하는 버스도 있으며 2시간 20분 소요된다. 베스프렘-지르츠는 열차(4시간 간격)로 30분, 베스프렘-쉬메그는 버스(하루 2회)로 1시간 40분. 베스프렘-티헤니는 열차(30분 간격)로 40분 걸린다. 소도시를 모두 둘러보려면 부다페스트나 베스프렘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좋다. 시차는 한국보다 7시간 늦다. 통화는 헝가리 포린트(HUF). 헝가리 대도시의 호텔이나 상점에선 미국 달러와 유로도 통용된다. 전압은 220V. 플러그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멀티탭을 준비하는 게 좋다.

<sup>1</sup> 쉬메그 마상경기 장내중세식 식당

<sup>2</sup> 흑해 연안 상인들과 유럽 내륙 상인들의 무역 통로였던 티폴처



traditional Hungarian martial arts including horseback archery, spear-throwing, and battles using spear and shield. After the match, a medieval dinner is served. Visitors eat in a dark restaurant deep in a cave, and the menu, accompanied by 40-degree strong liquor palinka, includes soup and bread, goose-leg grill and other dishes that are devoured using only spoon and hand, absent a knife or fork.

쭉배 타고 둘러보는 지하 호수 동굴, 터폴처

헝가리 말로 온천을 뜻하는 터폴처는 베스프렘 주 서남쪽에 자리한 인구 1만9,000여 명의 소도시다. 헝가리는 온천이 유명한 나라인데, 부다페스트 세체니 온천과 미슈쿨츠의 동굴 온천이 특히 유명하다. 여행객들은 온천욕 대신 동굴 호수 탐방을 즐긴다. 18~20℃의 용출수가 만들어낸 석회동굴을 쭉배를 타고 둘러본다. 1,370만 년 전 형성된, 3개 층으로 이뤄진 이 동굴호수는 1902년 발견됐다. 18km에 이르는 긴 동굴이지만 250m 구간만 일반에 공개하며, 그 가운데 180m 길이의 비좁은 동굴을 쭉배를 타고 둘러볼 수 있다. 수심은 0.4~3m인데, 조명을 설치해 물 밑바닥이 흰히 들여다보인다. 터폴처는 2,000년 전부터 형성된 옛 도시로, 일찍부터 지중해나 흑해 연안 상인들과 유럽 내륙 상인들의 무역 통로 중 한 곳이었다. 지금은 주로 19세기에 건축된 건물들이 남아 있다. 색깔있는 매력으로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헝가리 서부 소도시로 올 여름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Underground lake cave explored on a small boat at Tapolca

The word “hot springs” translates into Tapolca in Hungarian. It is the name of a small town southwest of Veszprem with a population of 19,000. As a country renowned for its hot springs, some of Hungary's best-known spots are the Széchenyi Baths in Budapest and the Cave Bath of Miskolc Tapolca. But for travelers, the cave lake tour is more popular than bathing in hot springs. On this tour, passengers get in a small boat that navigates a limestone cave filled with karst water of 18-20 degrees Celsius.

This three-story cave lake was first discovered in 1902 but has been in existence for 1.37 million years. This long cave stretches over 18km, but only one section covering 250m is open to the public. From this section, a 180m-long narrow cave can be explored by boat. The waters are 0.4-3m deep, and the translucent water is lit up with lights. Tapolca is an old town founded 2000 years ago, and it was one of the early channels of trade for merchants from Mediterranean or Black Sea coastal areas and inland Europe. The buildings that remain today were mainly built in the 19thcentury. How about heading to these western Hungarian towns that delight travelers with their unique charm this summer?



# CHEIL INDUSTRIES LANDSCAPE BUSINESS

화목하고 정겨운 삶의 터전  
모아 미래도 아파트 조경 현장

Editor 최수정 Choi Su Jung  
Photographer 김건희 Kim Gun Hee

세종시에 위치한 모아 미래도 아파트의 조경 현장을 찾았다. 자연 속 작은 마을을 연상시키는 안락한 공간 위로 행복한 삶의 단편들이 그려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아름다운 조경의 힘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정 빛날 것이다.





1



4

**집 안의 행복이 밖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에 위치한 모아 미래도 아파트는 오는 8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창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제일모직 경관공사그룹이 공사한 조경을 둘러보았다. 총 406세대의 마을 주민들이 서로 정겹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아담하면서도 안락한 규모와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대지 면적은 2만 7,101㎡, 총 5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조경 면적이 전체 면적의 41%를 차지한다. 단지를 둘러싼 산책로를 비롯해 티 가든, 놀이터, 워터 스크린,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공간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아파트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요즘은 입주 전에 아파트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건물뿐만 아니라 조경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아파트 조경이 입주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주거 공간과 더불어 주위 조경까지도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모아 미래도 아파트는 작은 규모지만 생활 환경이 밀착될 수 있는 단점을 조경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주민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산책이나 조깅 코스로도 부족함이 없으며, 대왕 참나무가 길 양편으로 100m 정도 늘어선 중앙 산책로도 그 질푸른 우거짐이 참으로 풍성하다. 친환경 원목 소재로 만든 놀이 시설물을 갖춘 놀이터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놀이터와 연계한 워터 스크린과 바닥 분수는 사시사철 주민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할 것이다. 그 곁에 마련된 티 가든의

벤치에서 여유로운 사색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바닥 포장에도 여러가지 스타일의 자재를 사용해 미관을 고려했다. 인조 화강석 블록 포장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고무칩 포장, 인조잔디, 소형 고압 블록, 돌 블록 사이로 촘촘히 잔디가 올라와 자연의 정취를 풍기는 잔디 블록 등. 공간의 용도와 이용 형태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한 점이 돋보인다.

**조경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완성해가는 것**

모아 미래도 아파트의 조경 공사는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입주가 한 달 남짓 남은 요즘에는 나무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흙을 움켜쥔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의 이재근 주임은 나무가 오는 시간에 맞춰 이른 새벽도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 나와 혹여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직접 감독하고 나무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살피고 있다. “얼마 전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져서 걱정이 많았어요. 매일 한 그루씩 찾아가 등백 물을 주고 잘 견뎌내라며 말도 건넸죠. 이런 정성이 없으면 바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합니다. 세종 모아 미래도 아파트는 앞으로 3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조경을 꾸민 주요 수종은 느티나무, 왕벚나무, 살구나무가 대표적이며 복측 산책로에서는 테마 식재로 심은 산수유도 만날 수 있다. 또한 능률한 자태를 뽐내는 장송과 팽나무는 마치 마을이 시작되는 어귀에 있는 듩직한 나무처럼 조경의 중심을 잡고 있다. 이번 현장은 공사를 진행한 팀들에게는 더욱 뜻깊다. 건축주의 높은 만족감으로 수원과 서울, 오창 등의 모아 미래도 아파트 조경 사업을 연계 해주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결실이 또 다른 결실을 낳고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게 행복한 공간이 우리들 곁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 체계적인 조경 관리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아파트 입구.

2 목재로 제작된 놀이터는 아이들의 건강까지 고려했다.

3 아담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라 여유롭고 안락한 조경의 배치를 위해 신경 썼다.



2



3



5



6



**Editor** 최정원 Choi Jung Won  
**Photographer** 김수 Kim Su  
**Model** 니키 에반스 W. Nicky Evans, 박가비 Baylee Ann Boehr  
**Styling** 김하얀 Kim Ha Yan  
**Hair & Makeup** 박성미 Park Sung Mi

남 시원한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올인원 레시 가드 MLB 키즈  
여 상큼함이 돋보이는 핑크 컬러의 레시 가드 MLB 키즈  
별 패턴이 포인트인 수영복 하의 캣츠

# READY FOR THE SUMMER SPLASH?

짜릿한 여름을 즐기는 방법

여름의 절정, 무더위를 벗어날 준비를 마쳤나요? 여름엔 뭐니 뭐니 해도 신나는 물놀이가 제격입니다. 시원함으로 무장한 캐리비안 베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함께 떠나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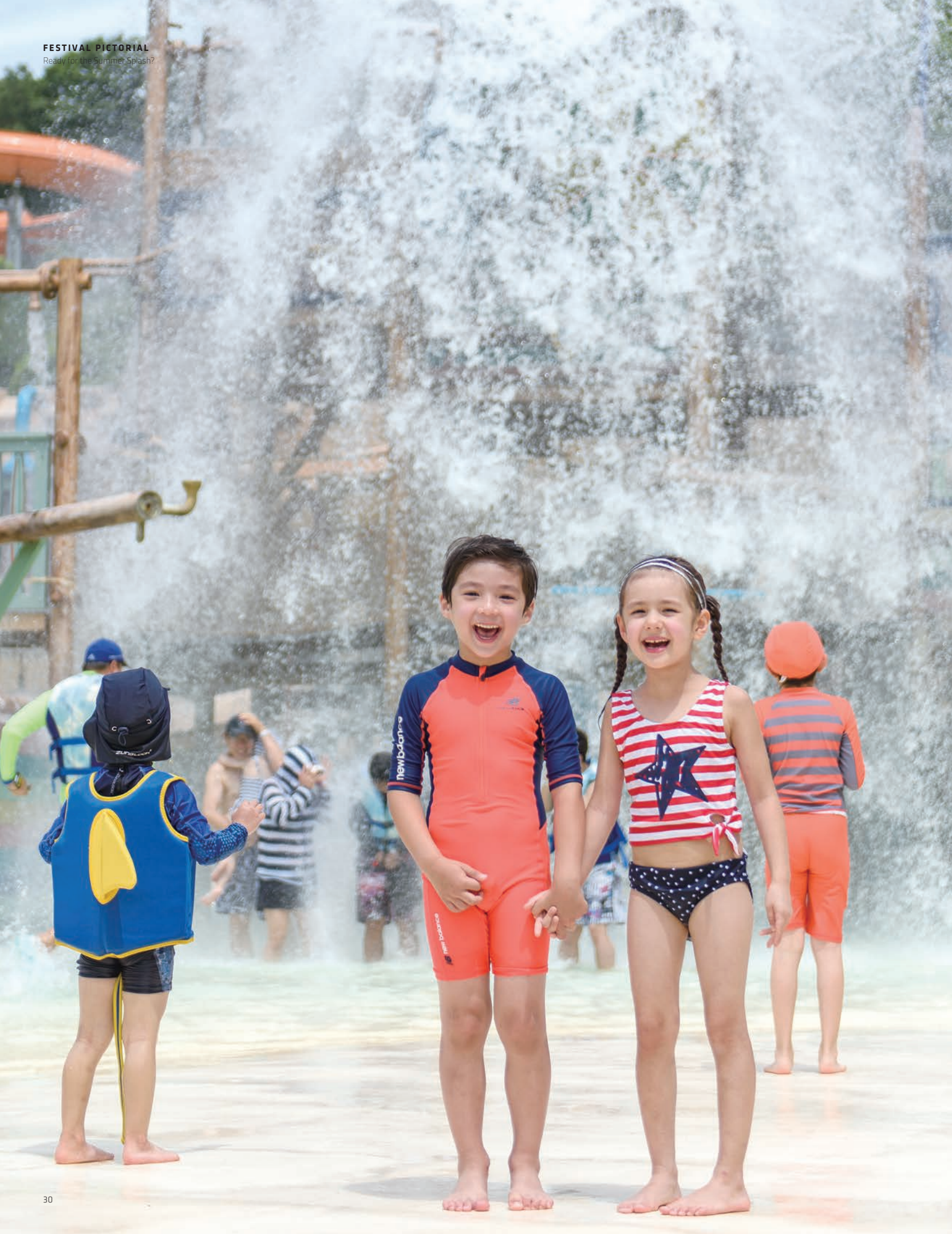
내리쬐는 태양 아래 안락한 선베드에 누워 캐리비안 베이의 열정을 느껴보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나팔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파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감 백배! 물아치는 파도에 맞서는 사람들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감상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좌)  
남 시원한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올인원 레시 가드 MLB 키즈  
여 상큼함이 물씬 느껴지는 핑크 컬러 레시 가드 MLB 키즈  
별 패턴이 포인트인 수영복 하의 캡 키즈

(우)  
여 스트라이프 패턴이 멋스러운 원피스 에스크 주니어







5, 4, 3, 2, 1! 해골바가지의 물 폭탄이 쏟아져내리면 웅기증기 모여 있던 사람들은 다 함께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물총까지 갖추면 즐거움이 배가한답니다. 물의 요정과 함께한 캐리비안 베이의 여름 안에서 즐거우셨나요?

(좌)  
**남** 선명한 오렌지 컬러로 밝은 이미지를 전하는  
올인원 래시 가드 뉴발런스 키즈  
**여** 화이트, 레드 스트라이프 패턴과 별 무늬의 완벽한 조화가 돋보이는  
수영복 상의 캡 키즈  
별무늬 패턴이 포인트인 수영복 하의 캡 키즈  
  
(우)  
**남** 스트라이프 패턴과 어우러진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귀여운 느낌을 주는  
셔츠 에스크 주니어  
**여** 스트라이프 패턴이 멋스러운 원피스 에스크 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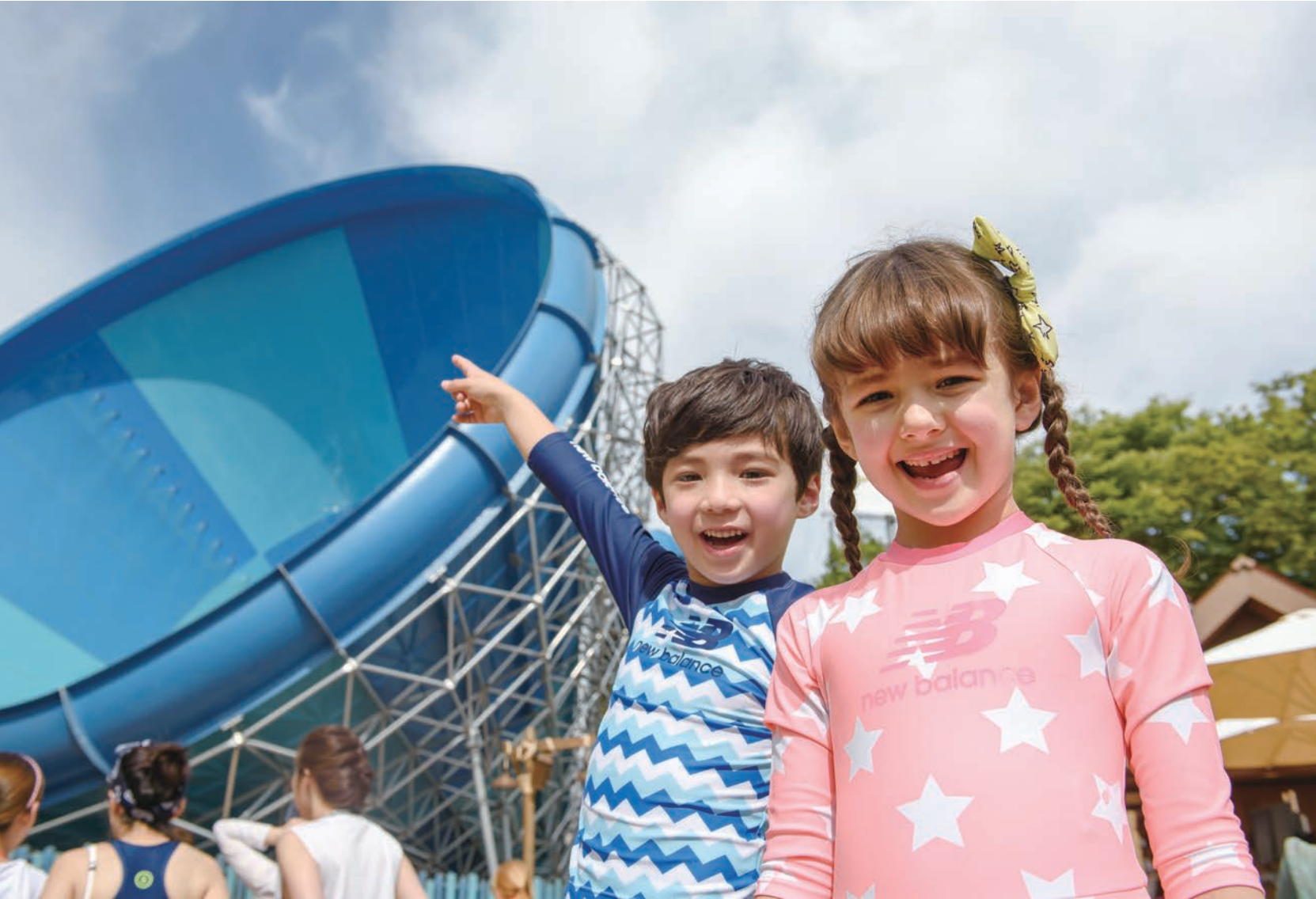




튜브를 안고 총총총 유수풀로 떠나요! 튜브 위에 올라타면 물의 요정이 당신을 반겨줄 거예요.  
눈부시게 반짝반짝 빛나는 유수풀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남 발랄해 보이는 연두색 레시 가드 MLB키즈  
여 4가지 색상의 패턴이 들어가 경쾌한 느낌이 나는 비키니 수영복 캐스키드슨





보기만 해도 아찔한 메가 스톤은 무더위를 날려줄 짜릿함이 매력적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원형 튜브에 올라타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빠른 속도로 튜브가 미끄러져요. 깔때기 모양의 토네이도 코스에서 바이킹을 타듯 내려오면 더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답니다.

남 세파란 프린트가 시원한 느낌을 주는 레시 가이드 수영 반바지 뉴발란스 키즈  
여 별 무늬 패턴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기미한 원피스 수영복 뉴발란스 키즈







26 27



Girl  
뽕뽕이 플라이 헤어핀, BL



28 29



Girl  
핀글라스, 리본, 아동



30 31



Girl  
S 돌고래 탱크 물총, 15.0 PK



Boy  
S 돌고래 탱크 물총, 15.0 BL



32 33



Girl  
C로고 원형 튜브 70cm, PK



Boy  
C로고 원형 튜브 70cm



34 35



Girl  
별패턴 플라이 헤어핀, YE

에메랄드빛 물, 이국적인 휴양지 무드, 슈퍼 어트랙션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의 규모부터 짜릿한 라이딩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즐길 수 있는 캐리비안 베이에서 진정한 여름휴가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올여름, 캐리비안 베이는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신개념 복합형 워터 슬라이드 '메가 스톰'이 그 주인공.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 메가 스톰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 공공 행진 중이다.

먼저 캐리비안 베이의 대표 주자인 파도풀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즐겨보자. 에스파나풍 석조 건물을 비롯해 각종 아열대

의상 및 슈즈 협찬

갯키즈(02-3213-4401)  
뉴발란스키즈 (02-772-3725)  
에스크주니어 (02-3289-8575)  
캐스키드슨 (02-3213-4711)  
MLB키즈 (02-772-3794)  
뽀빠파리 (02-551-7045)



# LET'S SPLASH INTO SUMMER NOW!

시원한 여름 축제  
‘에버랜드 썸머 스플래쉬’

Editor 유명은 Yoo Myung Eun

Photographer 류정훈 Ryu Jung Hun

8월 30일까지 열리는 에버랜드 여름 축제 ‘썸머 스플래쉬’, 올해도 알차게 준비하고 우리를 찾아왔다.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이 여름을 마음껏 즐기자.

## 물총 싸움으로 더위를 날려라! 새로워진 ‘잭의 스플래쉬 퍼레이드’

자, 총을 장전할 때가 왔다. 수통 가득 물을 장전한 다음, 힘차게 당기자. 싸아 싸아 싸아! 신나는 물총 싸움이 벌어지는 썸머 스플래쉬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스플래쉬 퍼레이드’. 올해에는 퍼레이드 타이틀과 주인공이 조금 바뀌었다. 새로운 타이틀은 ‘잭의 스플래쉬 퍼레이드’, 주인공은 에버랜드 대표 캐릭터 레니와 라라의 장난꾸러기 친구들인 ‘잭과 도나’이다. 퍼레이드는 통통 튀는 사고뭉치 매력덩어리 캐릭터인 사막여우 ‘도나’와 만능 발명가 호랑이 ‘잭’이 펼치는 신나는 물총 싸움으로 진행된다. 총 6대의 플로트와 40대의 물대포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대며 매일 3회씩 펼칠 예정. 특히 퍼레이드 피날레에는 잭과 도나가 다시 등장해 약 5분간 손님들과 신나는 물총 싸움을 벌인다. ‘잭의 스플래쉬 퍼레이드’를 더욱 신나게 즐기고 싶다면 비옷과 물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 에버랜드는 퍼레이드 시간 외에도 물총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곳곳에 ‘너프 워터슈팅 존’을 마련했다. 물총으로 과녁을 맞추는 타깃팅 게임이 이뤄지며, 포시즌스 가든 내 중앙 분수와 벽천 분수, 장미원 내 비너스와 큐피트원 분수에서 진행한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썸머 스플래쉬’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야간 개장 시간 연장,

### 더욱 풍성한 야간 즐길거리

에버랜드 썸머 스플래쉬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개장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 밤 11시까지 오픈할 예정이다. 야간 개장 시간을 연장한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잖아도 올여름 에버랜드는 한낮 무더위를 피해 오는 손님들을 위해 밤 시간의 즐길거리를 더욱 다양하게 준비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박칼린의 주크박스’는 이제 에버랜드의 여름밤 대표 축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박칼린 감독이 직접 음악 선정과 연출에 참여해 매년 여름 축제 때마다 선보이는 멀티미디어 불꽃 쇼인 ‘박칼린의 주크박스’는 에버랜드 축제의 클라이맥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에는 포시즌스 가든에서 ‘세계의 춤’을 주제로 탭고, 트위스트, 발리댄스 등 귀에 익은 세계 각국의 댄스 음악에 맞춰 워터캐논, 서치라이트 등의 특수효과와 영상, 조명, 불꽃 등이 더욱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멀티미디어 불꽃 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공연 도중 장르별 전문 댄서들이 객석에 마련된 무대에 등장해 손님들과 함께 신나는 댄스 타임을 갖는 등 ‘함께하는 공연’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

3D 맵핑 쇼 ‘아틀란티스 어드벤처’는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 길이 70m, 높이 23m 크기의 대형 신전 건축물에 화려한 맵핑을 정교하게 구현하는 ‘아틀란티스 어드벤처’는 환상의 섬 아틀란티스를 찾아 떠나는 바닷속 모험이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3D 영상으로 펼쳐진다.

장미원에 위치한 ‘별빛요정의 비밀정원 시즌2’도 눈여겨볼 것. ‘별빛요정의 비밀정원’은 세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 밤의 꿈>을 테마로 조성한 스토리텔링 가든으로, 각종 조명과 LED 장식을 비롯해 특수 소재 활용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정원 연출 면적을 2배 확대하고 ‘사랑’을 주제로 한 온라인 일러스트 작품 50여 점을 전시하는 야외 가든 갤러리를 만드는 등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 여름의 낭만 꽃길

### ‘에버 블루밍 썸머’

여름에도 에버랜드 곳곳에는 꽃들이 만발했다.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긴 ‘여름의 낭만 꽃길’이라는 주제 아래 100여 종 3만5,000송이의 다양한 여름 꽃을 활용한 테마 가든 ‘에버 블루밍 썸머’를 새롭게 선보인 것. 물의 요정을 주제로 한 화려한 양수꽃밭과 함께 이색 수생식물이 펼쳐지는 ‘넵프 가든’, 유선형 동선 주변으로 꽃이 굽이치며 흐르는 듯한 ‘썸머 웨이브 가든’, 달빛 요정이 사랑을 이뤄주는 스토리를 따라 이색적인 화분에 담긴 다채로운 여름 꽃과 허브 향이 가득한 ‘썸머 컨테이너 가든’, 부케를 연상시키는 하얀 수국꽃이 가득한 ‘프로포즈 가든’까지 4개의 테마 가든을 조성했다. 여름 꽃을 전시한 것 외에도 사랑의 동전 던지기, 사람의 글귀, 웨딩 포토 존 등을 곳곳에 마련해 놓아 더욱 풍성한 재미를 선사한다. 테마 가든은 에버랜드 내 글로벌페어, 이솜무빙웨이, 장미원, 게임플라자 인근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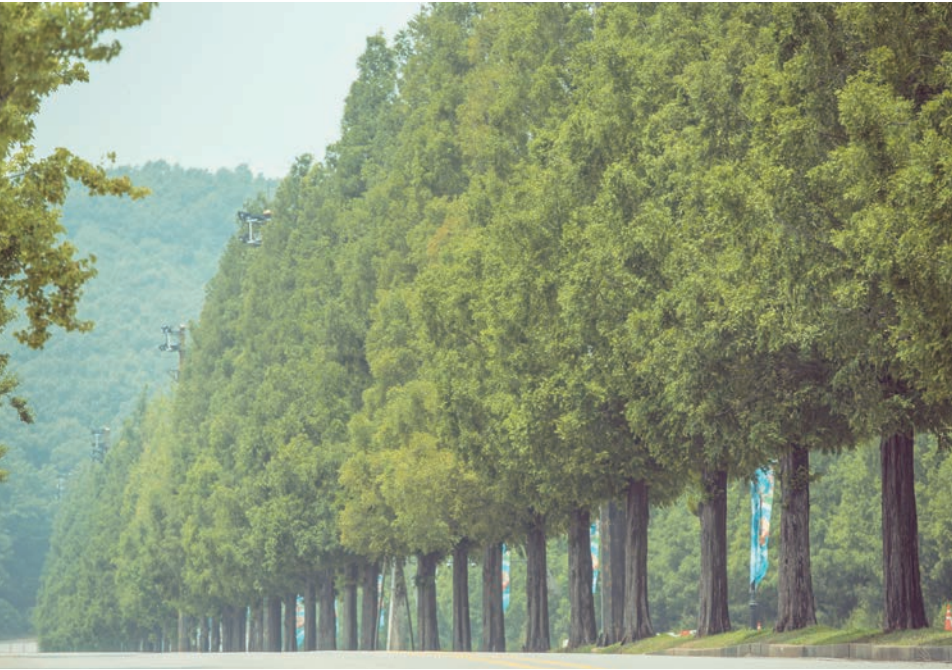
# PHOTO ESSAY

에버랜드가 전하는 여름의 절정

Editor 최정원 Choi Jung Won  
Photographer 김수 Kim Su Cooperation 락피쉬



돌고래가 “뿌우” 하고 물을 뿜으면,  
꼬마 소녀는 신이 나서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 해요.  
시원한 물줄기가 소녀의 볼에 닿는 순간,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이 싱그러운 여름을 닮았어요.



여름의 절정, 에버랜드의 자연은 색색의 고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키다리 나무는 짙푸른 초록빛을 더하고,  
샛노란 해바라기는 환하고 어여쁜 얼굴로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어요.





■  
첨벙첨벙 물길을 따라 건다 보면  
캐리비안 베이이 우리를 향해 손짓해요.  
나팔 소리와 함께 파도가 밀려오면 “까르르” 웃으며  
물을 맞는 모습이 유쾌하답니다.



■  
에메랄드빛 물결 위를 동실동실 떠다니는 즐거움.  
온종일 튜브 위에 있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은 편안함.  
지극히 평온한 우리들의 힐링 타임.



# MEGA STORM HITS CARIBBEAN BAY

메가 스톰,  
캐리비안 베이를 덮치다

Editor 유명은 Yoo Myung Eun  
Photographer 류정훈 Ryu Jung Hun

## 대자연의 위력을 담은, 슈퍼 어트랙션 ‘메가 스톰’

“수년 전 엄청난 폭풍이 카리브 해의 작은 섬을 덮쳤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를 보며 새삼 대자연의 위력을 느낀 사람들. 자연 앞에서 오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자고 다짐한다.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되새김질하기 위해 큰 기계를 세웠다. 이 기계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의 힘을 직접 체험하고 위력을 경험함으로써 겸손함을 잊지 않기 위해...” 폭풍이 가진 위력을 경험한다고 생각해보라. 그 아찔함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올여름, 캐리비안베이에서는 위력적인 폭풍을 테마로 한 새로운 어트랙션 ‘메가 스톰’을 선보였다. 롤러코스터와 바이킹의 묘미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복합형 워터 슬라이드로 스릴 넘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

## 상상 그 이상, 메가 스톰의 아찔한 라이딩

메가 스톰의 라이딩은 어떨까. 원형 튜브에 탑승하고 출발하자마자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빠른 속도로 미끄러진다.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다. 이어서 상하로 구불구불한 트랙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코스. 그런데 기존 워터슬라이드의 라이딩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오르내리는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다. 보통은 내려갈 때 속도에 비해 올라갈 때의 속도감이 떨어지는 법. 그런데 메가 스톰의 경우엔 총 3곳의 급상승 구간에 선형유도모터(LIM) 방식을 적용해 올라갈 때의 속도감을 더했다. 바닥에 특수 알루미늄 합금을 내장한 튜브가 선형유도모터 장치를 설치해놓은 급상승 구간을 지나갈 때 자기장을 형성, 마찰 없이 붕 떠서 로켓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다. 급상승할 때의

역시 캐리비안 베이다. 슈퍼 어트랙션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의 규모부터 라이딩까지, 모두 최고다. 괜히 이름이 ‘메가 스톰’이 아니다.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한다. 신개념 복합형 워터 슬라이드 ‘메가 스톰’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 고공 행진 중이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스릴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메가 스톰에 탑승하자!

속도는 최대 시속 50km 정도이다. 이렇게 급상승과 급하강을 반복하며 느끼는 긴장감과 스릴감은 소름이 끼칠 정도.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메가 스톰의 클라이맥스인 토네이도 코스가 바로 이어진다. 18m의 대형 깔때기 모양 토네이도 코스는 마치 바이킹처럼 좌우 진자 운동을 하듯 튜브가 좌우로 3번 왕복하며 아찔한 무중력 체험에 빠져들게 한다. 바이킹 라이딩에서 느끼는 온몸이 움츠러드는 짜릿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바이킹의 재미를 한데 모은 신개념 복합형 워터 슬라이드가 탄생한 것이다.

##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형 워터 슬라이드

자기 부상 워터 롤러코스터와 토네이도가 결합된 복합형 워터 슬라이드는 세계에서 단 2곳뿐. 캐리비안



베이의 메가 스톰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야스 워터월드의 ‘다와마(Dawama)’, 이렇게 둘뿐이다. 그러나 규모로 따지면 메가 스톰이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힌다. 약 8,000m<sup>2</sup> 면적에 지어진 메가 스톰의 코스 길이는 355m로 다와마의 240m 코스 길이보다 약 1.5배 더 길다. 지름 18m에 달하는 초대형 깔때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원형 튜브는 지름 2.7m, 무게 200kg로 최대 6명이 탑승할 수 있다. 총 170억원이 투입된 메가 스톰은 워터슬라이드 전문 업체인 캐나다 프로슬라이드사가 제작했다.



## 놓치지 않을 거예요, 캐리비안 베이의 해적 체험 이벤트 3



## 해적 밴드 뮤지컬 공연 <트레저 헌터>

해적 일당과 해골 유령의 보물 싸움을 스토리로 카리브 스테이지에서 뮤지컬 공연 <트레저 헌터>가 무대에 오른다. 비보잉 댄서, 밴드 연주자 등 12명의 연기자가 등장해 라이브 연주 음악에 맞춰 20분 동안 신나는 뮤지컬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 도중 연기자들이 객석을 드나들며

관람객들에게 미션을 주기도 하고, 손님들과 함께 댄스 타임을 펼치는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하며 즐기는 체험형 공연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공연은 매일 2회씩, 8월 23일까지 진행되며 화요일은 쉼다.

**해적 체험 프로그램 ‘해적 보물 탐험’** 해적 보물 탐험은 6~8세 어린이를 위한 에듀테인먼트 체험 프로그램. 캐리비안 베이이 유아 교육 및 놀이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해 올해 첫선을 선보인다. 해적 복장과 페이스 페인팅 등을 통해 해적으로 변신한 어린이들이 약 1시간 동안 캐리비안 베이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다니며 체조, 비치볼 멀리 보내기,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미션형 게임을 수행한다. 와일드 리버 지역에서 8월 23일까지 회당 15명씩 매일 4회씩 진행하며 별도의 체험비가 있다. 참가는 캐리비안 베이 방문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게릴라 해적 퍼포먼스** 올여름 캐리비안 베이 내에서 해적을 마주칠 일이 많겠다. 8월 23일까지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해적 복장을 한 연기자가 갑자기 나타나 관람객들에게 코믹 연기를 선보이고 포토 타임을 갖는 등, 게릴라 해적 퍼포먼스가 수시로 펼쳐질 예정이다. 깜짝 놀라 도망치지 말고 해적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면 된다.



# ANIMAL IN NEED OF PROTECTION, URSINUS

지 키 자 , 물 개 박 수 짝 짝

Editor 유명은 Yoo Myung Eun

전 세계에 130만 마리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거의 멸종했다. 이렇다간 머지않은 미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보호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5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했다. 재주 많은 귀염둥이 ‘물개’ 이야기다.

물개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멸종 상태이다. ‘우리나라에도 물개가 살았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동해에 떼를 이뤄 나타나 섬 인근에서 서식하곤 했다. 특히 독도는 물개가 떼를 지어 거울을 나는 곳으로 유명했다. 지금도 아주 가끔씩 동해에 물개가 나타났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지만, 대개 지나가는 물개일 뿐 물개는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물범 등과 같이 바다 포유류에 속한다. 물속에서 헤엄치고 땅 위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바다 동물이다. 바닷속에서 헤엄을 잘 치는 동물이 대개 그렇듯 귀가 매우 작으며 머리는 둥근 모양의 방추형 몸이 특징이다. 머리가 튼튼하고 목이 굵으며 지느러미처럼 생긴 네 다리가 있어 헤엄을 잘 치는데, 앞다리가 상대적으로 길고 뒷다리를 앞으로 회전할 수 있어 네 다리로 걷고 달릴 수도 있다. 털은 물속에서 헤엄을 쳐도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겉의 길고 뾰뾰한 가시 털 아래로 벨벳 같은 솜털이 뽁뽁하게 나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물개는 태어나면 처음엔 몸피가 검은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털갈이를

하면서 등은 짙은 갈색이나 흑회색, 배는 옅은 색이 된다. 암컷은 1.3m, 수컷은 약 2.5m까지 자라며 수컷이 암컷의 2배 크기이다. 몸무게도 수컷이 훨씬 더 많이 나가서 180~270kg이며, 암컷은 43~50kg이다. 물개가 바닷속에서 헤엄칠 때의 속도는 시속 25km. 많이 나가는 체중에 비해 속도가 빠른 편이다. 물속에서 먹이를 잡고 놀다가 땅 위로 올라와 햇빛에 몸을 말리며 쉬기를 반복하다 저녁이 되면 암초에 모여서 잔다. 먹이는 작은 물고기, 오징어, 크릴새우 등 육식성이다. 물개는 먹이가 풍부한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번식기가 되면 섬과 같은 일정한 특정 장소에 모여 큰 무리를 이룬다. 일부다처제로 수컷 한 마리가 30~50마리의 암컷을 거느린다. 수컷은 번식 기간 동안에는 먹이를 먹지 않는다. 암컷은 340일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 새끼 한 마리를 낳고, 1주일 동안은 새끼 곁을 떠나지 않고 젖을 주며 돌본다. 반질반질한 물개의 모피를 갖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물개를 남획한 결과 현재 물개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결국 ‘멸종위기 보호종’이라는 이름표를 단 지금, 더 이상의 물개가 희생되지 않도록, 바다와 육지를 마음껏 오가며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호해야 할 때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에버랜드에 서식하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개체 수

4

# URSINUS

## VICTORIA CRUZIANA

한여름 연못을 장식하는  
수련의 여왕, 빅토리아수련

Writing · Photograph

박원순 Park Won Soon



빅토리아수련 Victoria cruziana

크기 잎 지름 1.2~1.7m  
용도 관상용  
개화 시기 7~9월  
분포지 남아메리카



글로벌 페어에 위치한 남프가든에서  
빅토리아 수련을 만날 수 있다.

한여름 정원에서는 연못에 피어난 수련과 연꽃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크다. 미국 롱우드 가든 수련 전시원에서 수생식물들을 돌볼 기회가 있었다. 그 시절, 잠깐잠깐 맡아본 수련의 향기는 머릿속을 어지럽히곤 했다. 그 어느 고급스러운 향수도 흉내 내기 어려운 매혹 그 자체였다. 수련들 중에서는 단연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의 존재감을 지닌 빅토리아수련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잎 한 장의 지름 2.5m, 꽃의 크기 30cm, 잎줄기 길이 6m. 남미 열대지방의 강가에서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빅토리아수련이 보유한 기록이다. 최대 크기로 자란 잎은 날씬한 성인의 무게(약 45kg)를 지탱할 정도로 튼튼하고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공상과학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모습을 갖춘 이 괴이한 식물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837년 영국의 식물학자 존 린들리(John Lindley)에 의해서였다. 당시 즉위한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해 ‘빅토리아(Victoria)’라는 이름을 붙였다. 야생에 존재하는 빅토리아수련은 아마조니카(Amazonica)와 크루지아나(Cruziana) 두 종류가 있다. 롱우드 가든의 패트릭 너트(Patrick Nutt)이 두 종을 교잡해 만든 ‘롱우드 하이브리드(Longwood Hybrid)’라는 품종도 유명하다. 아마조니카는 잎이 맛있는 반면 크루지아나는 잎 테두리가 각을 이루며 쟁반처럼 올라온다. 롱우드 하이브리드는 두 종의 장점을

남미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빅토리아수련을 소개한다.

갖춰 잎 테두리도 올라오고 밑면도 청동색이라 관상학적 가치가 높다. 꽃봉오리를 맺은 첫날 밤엔 하얀색의 암꽃으로 피었다가 둘째 날 밤에는 진분홍색 수꽃으로 변한다. 밤에 꽃가루를 옮겨주는 특별한 딱정벌레를 유인하기 위해 빅토리아수련의 꽃은 열기를 발생시켜 아주 진한 향기를 발산한다. 그래서 한여름 수련 전시원은 달콤한 파인애플 향 같은 빅토리아수련의 향기로 가득해진다. 그 반면 잎 밑면과 줄기, 꽃눈이 온통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여 있어 물고기는커녕 웬만한 수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한다. 빅토리아수련을 직접 기르려면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한다. 매년 가을 콩알만 한 씨앗들을 받아 15~16℃ 되는 곳에 보관했다가 1~2월경 수온이 27~29℃ 즈음 되는 온실 수조에 파종한다. 발아한 종묘를 몇 차례에 걸쳐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5월쯤 잎 크기가 30~40cm 정도로 자란다. 여름이 시작되면 잎이 더욱 빠르게 자라고 8월 중순쯤에는 화분의 크기에 따라 잎의 지름이 1m를 훌쩍 넘기게 된다. 한창 때는 잎 지름이 하루에 10cm 이상 자랄 정도로 생육이 왕성하다. 여름 내내 에버 블룸잉 썸머(Ever Blooming Summer) 꽃 축제가 한창인 에버랜드에서도 빅토리아수련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무궁화, 파피루스, 타알리아 등 예쁜 수조에 담긴 다양한 수생식물과 함께 밤에 더욱 활짝 피어난 빅토리아수련의 꽃과 잊지 못할 향기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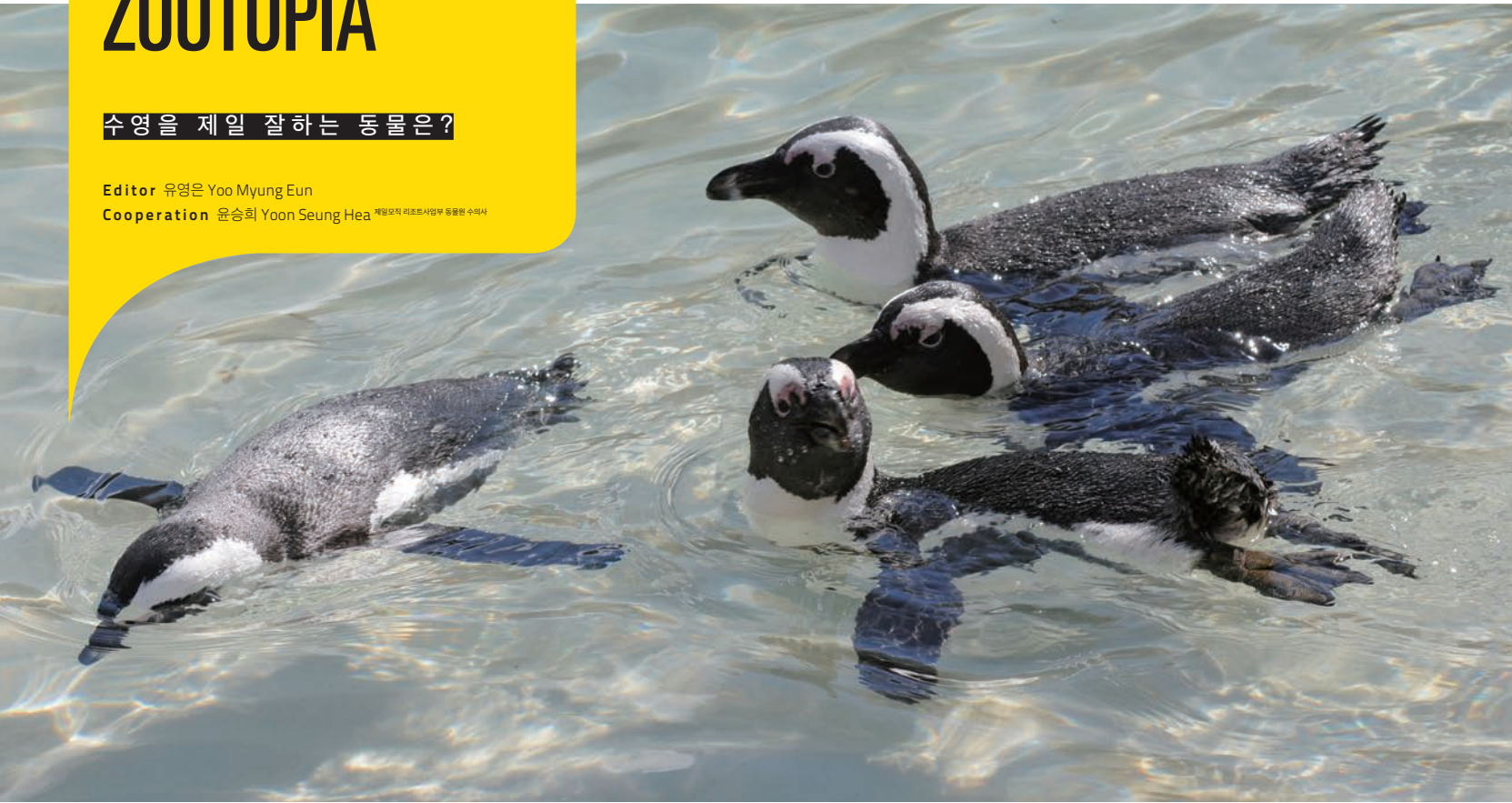
# THE BEST SWIMMER IN ZOOTOPIA

수영을 제일 잘하는 동물은?

Editor 유영은 Yoo Myung Eun

Cooperation 윤승희 Yoon Seung Hea 제왕모작 리포트서임부 동물원 수의사

폭폭 찌는 무더운 여름이 되면 주토피아 동물들도 물속에서 더위를 식히곤 한다. 그렇다면 주토피아의 펠프스는 누구일까? 수영 실력이 돋보이는 주토피아 친구는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의외의 동물 친구들이 꼽혔다. 뒹뒹둥 걸음걸이가 엉성해 보여도, 누구보다 몸집이 거대해 물에 뜨거나 할까 걱정스러워도 수영 실력만큼은 뛰어난 주토피아 친구들을 만나보자.



1

## 뒹뒹둥 걸어도 물속에서 가장 빠르다

### 자카스펭귄(Spheniscus demersus)

‘펭귄이니까 당연히 추운 곳에서 살겠지’라고 생각할 터. 놀랍게도 남극이 아니다. 자카스펭귄은 수온 10~20°C의 따뜻한 해류가 지나는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에 서식한다. 주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지역에 분포돼 있다. 그래서 ‘케이프펭귄’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자카스(Jackass)란 이름은? ‘깹깹’ 하며 내는 소리가 당나귀와 비슷한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카스펭귄은 평균 몸길이 약 35cm, 몸무게 약 3.3kg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신장의 펭귄이다. 물 밖에서는 뒹뒹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건지지만 물속에서는 시속 20~40km로 헤엄칠 만큼 빠르고 민첩한 수영 실력을 지녔다. 잠수 실력이 뛰어난데 가장 오래 잠수하는 시간은 5분, 가장 깊이 헤엄칠 수 있는 수심은 35m이다. 온몸에 3개 층의 짧은 깃털이 촘촘하게 나 있는데,

방수 역할을 하는 뺏뺏한 윗부분과 보온을 담당하는 부드러운 아랫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몸통은 수영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유선형 몸매이다. 다리는 짧아 보이지만 실은 대퇴와 정강이 부분이 깃털에 덮여 있어 드러나지 않을 뿐,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 추위를 타지 않는다. 가슴을 가로지르는 검은띠 아래로 작은 점들이 퍼져 있는데, 이 점은 사람의 지문처럼 펭귄마다 모두 다르다. 눈 위에는 분홍색의 분비선이 있는데 그곳에서 체온을 조절한다. 너무 더워 체온이 높아지면 혈액을 눈 위 분비선으로 보내 공기 중으로 열을 발산하여 체온을 낮추는 식이다. 새끼는 머리 부분에 검은 털이 나 있고 자라면서 몇 번의 털갈이를 통해 하얀 줄무늬가 생긴다. 펭귄은 1년에 한번씩 털갈이를 하는데 이 기간에는 방수가 되지 않아서 유명하지 않는다. 털갈이 기간에는 물속 먹이 사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잔뜩 먹여둔다. 먹이는 오징어와 청어, 조개 등 어패류를 주로 먹는다.



1 물속에서 가장 빠른 자카스펭귄

2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북극곰

3 자카스펭귄 못지않은 수영 실력을 가진 수달



2

자카스펭귄은 일부일처제로 한번 짝을 이룬 펭귄 부부는 평생을 같이한다. 한 번에 2개의 알을 낳는 데 암수가 교대로 품어 부화하며 부화까지 33~44일 정도 소요된다. 새끼 펭귄이 태어나면 30일 정도까지는 부모가 돌보고 그 이후에는 공동 육아장에 모아놓고 스스로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될 때까지 펭귄 무리 전체가 돌본다. 귀여운 자카스펭귄은 주토피아의 펭귄과 바다동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 느릿느릿해도 수영을 좋아하는,

### 북극곰(Ursus maritimus)

지구의 북쪽 끝, 극지방에 사는 북극곰은 백곰으로도 불린다. 북극곰은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데, 곰과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크다. 몸길이가 수컷 190~250m, 암컷은 170~250m이고 몸무게는 수컷 300~800kg, 암컷 150~300kg이다. 먹이는 바다표범, 물고기, 바닷새, 순록 등으로 육지에서 가장 큰 육식동물이다. 먹이가 부족한 여름철에는 나무 열매나 해초 등을 먹기도 한다.

북극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사실 북극곰의 털은 빛반사로 하얗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투명하다. 또 여름에는 털이 노란색을 띤다. 이러한 털의 색깔은 얼음으로 뒤덮인 해안가에 살며 몸을 은폐하는 동시에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준다. 또 피부 아래에는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곰과의 다른 개체에 비해 대체로 머리가 작은 편이고 목은 길며 귀는 작고 둥글다. 발은 발바닥과 발톱의 패드 부분을 제외한 전체가 털로 뒤덮여 있어 차가운

얼음 위를 잘 걸을 수 있다. 두꺼운 발톱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형태여서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극곰의 체형은 길고 유선형의 몸매여서 헤엄을 잘 칠 수 있다. 또한 북극곰은 생각보다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바깥쪽으로 난 뺏뺏한 걸털이 방수 역할을 하며 안쪽으로는 짧은 털이 촘촘하게 나 있어 물에 젖어도 체온을 유지해준다. 헤엄을 칠 때는 물갈퀴를 이용하며 수영할 때는 얼굴과 어깨가 물 밖으로 나와 있다. 시속 6.5km로 65km 이상 되는 긴 거리를 헤엄쳐 건널 수 있으며, 최대 시속 30km까지 속도를 내려 수영할 수 있다. 주토피아 북극곰사에서 몸길이 3m, 몸무게 600kg에 달하는 커다란 몸집과 작은 얼굴로 인기 만점인 북극곰을 만날 수 있다.

## 자카스펭귄 못지않게 수영을 잘하는 주토피아 친구는?

### 수달(Lutra lutra)



3

수달의 수영 실력은 자카스펭귄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다. 사실 신체 조건은 수달이 더 잘 갖춰져 있다. 머리는 원형이고 다리는 짧으며, 조타수 역할을 하는 꼬리,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는 유선형의 몸매를 지니고 있다. 또 콧구멍 주변의 근육이 발달해 물속에서 콧구멍을 닫을 수 있어 잠영도 문제없다. 수면에서 유영할 때보다 물속에서 헤엄칠 때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 COOL INTERIOR TIPS FOR THE SUMMER



## 보 기 만 해 도 시 원 해 ! 여름 인테리어 Q & A

Editor 유명은 Yoo Myung Eun  
Cooperation 유주현 Ryu Joo Hyun 책임모직 건설사업부 건축디자인그룹 안영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찌는 듯한 여름철엔 집 안에 있는 가구조차 갸스레 갑갑하게 느껴진다. 시원하게 여름 인테리어에 도전해보자.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체감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더위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모두 시원하게 다독여줄 여름 인테리어 노하우, 제일모직 건설사업부 건축디자인 그룹 전문가들이 명쾌하게 답변했다.



여름 침구류 선택 요령 : 땀 흡수성이 좋고 몸에 덜 달라붙는 천연 소재가 좋다. 통풍이 잘되고, 가볍고, 시원한 리넨과 촉감이 부드럽고 포근하며 땀을 잘 흡수하는 친환경 소재가 적합하다.



포인트 인테리어로도 제격, 집 안에 활력을 더하는 식물 인테리어 : 부피가 크고 키 큰 관엽식물은 소파 옆이나 거실의 빈 공간에 두는 것만으로도 유니크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유리 볼에 담아 테이블 위나 벽에 드롭 스타일로 연출하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없습니다. 또 딱딱한 가구나 차가운 벽재 사이에 설치하면 자연의 생생함을 느끼게 해줘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줍니다. 테라리움은 유리 화기나 병 안에 식물을 심는 것으로, 매번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다육식물이 적합합니다. 가드닝할 때 유리병 속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식물이 익어버리니 밝은 곳에 두되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창문을 가리는 커튼마저 더워 보여 걷고 나면 강렬한 여름 햇볕에 곧 후회하고 맙니다. 어느 정도 채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침에 커튼 대신 블라인드나 시트지를 활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창문을 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는 여름 윈도 인테리어 노하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온이 치솟는 여름에는 창을 완전히 막기보다 강한 빛을 부드럽게 통과시켜 답답하지 않고 실내로 투과되는 빛이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도록 연출하면 좋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차단하는 용도라면 통 커튼을, 장식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시트지를, 자유롭게 빛의 양을 조절하려면 블라인드가 좋습니다. 여름 커튼으로 많이 사용하는 리넨 소재는 매끄러운 촉감과 빛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줘 강한 여름 햇살을 은은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조직이 성글고 거친 느낌을 선택하면 한층 시원해 보입니다. 아예 커튼을 걷어내고 싶다면 반투명 시트지를 활용하세요. 강렬한 햇살은 한 번 걸러주고 빛은 은은하게 투과시켜 살짝 가리는 듯한 느낌을 줘 답답하지 않습니다. 밋밋해 보일까 염려된다면 시트지에 이니셜이나 문구 등의 타이포그래피 패턴을 도려내면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하게 창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양지에 온 듯, 집 안을 동남아의 화려한 리조트 분위기로 꾸미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자수를 연상시키는 커다란 나뭇잎이나 줄기, 꽃, 새 등 보태니컬 패턴은 너무 화려하고 컬러도 과감하네요. 자칫 화려함이 과하게 느껴질까봐 조심스러운데,



강한 햇볕도 피하고 창가 인테리어도 쟁길 수 있는 방법 : 따가운 빛을 차단하는 용도라면 통 커튼을, 장식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시트지를, 자유롭게 빛의 양을 조절하려면 블라인드를 선택할 것.



화려한 리조트 분위기의 인테리어 : 새, 꽃, 아자수 등 자연을 모티프로 한 화려한 패턴과 컬러의 보태니컬 디자인은 집 안을 휴양지의 리조트 스타일로 연출해준다.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가구 선택 및 배치법 : 유리나 스텔로 만든 가구는 소재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전해준다. 여름철엔 특히 인더스트리얼 철제 가구의 매력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 TASTE OF SUMMER HOLLAND VILLAGE

극강의 여름 메뉴가 기다린다!  
홀랜드 빌리지

Editor 최정원 Choi Jung Won  
Photographer 류현열 Ryu Hyun Yeol, 김수 Kim Su



여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치킨과 맥주가 대세 아닐까.  
유럽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12개의 테마 레스토랑과  
1,000석 규모의 야외 테이بل로 구성된 홀랜드 빌리지에서  
시원, 짜릿한 여름의 맛을 즐겨보자.

유러피언 어드벤처 내에 위치한 홀랜드 빌리지는 북해 근처에 위치한 네덜란드 알크마르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12개의 테마 레스토랑이다. 1,350석의 야외 테이بل로 구성되어 있어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홀랜드 빌리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치킨과 최고의 공합을 자랑하는 맥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바비큐, 소시지 등 메뉴가 다양해 가족 단위의 고객들도 이용하기 좋다.

특히 독일의 퍼브에서나 맛볼 수 있던 학센과 독일 생맥주를 공수해 한여름 밤, 달콤한 분위기에 취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홀랜드 빌리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로티서리치킨과 구운 야채’. 로티서리치킨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치킨 한 마리를 머스터드와 로즈메리 등의 허브와 함께 오븐에 1시간 30분 정도 구워낸다. 이렇게 구운 치킨은 기름기가 쏙 빠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자랑한다. 여기에 구운 채소를 함께 곁들여 느끼함을 덜었다. 특히 소화를 촉진하는 양파와 함께 한입 베물면 고소함이 살아 있는 호박, 방울토마토까지...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한입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이 있어 재방문률이 높다. 여기에 고객 취향에 맞게 케첩과 머스터드 소스 등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으며, 닭 가슴살 부위의 뽀뽀한 느낌을 싫어하는 고객들을 위해 직접 닭근 피클도 함께 제공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홀랜드 빌리지의 남다른 감동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홀랜드 빌리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정통 독일 밀 맥주는 신선함이 살아있다. 이외에도 바비큐 폭립, 세 가지 맛 사각 피자, 학센, 모든 소시지와 냉메일까지 골라먹는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어린이 고객이 좋아하는 바비큐 폭립은 특제 소스와 함께 구운 등갈비의 부드러운 맛을 음미할 수 있어 치아가 약한 어린이들도 부담 없이 마음껏 맛볼 수 있다. 홀랜드 빌리지는 야외 레스토랑인 만큼 중앙에 특별 무대가 설치되어 있다. 저녁이면 밴드의 멋진 악기 연주와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근처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는 불꽃 쇼의 멋진 불꽃이 하늘을 수놓으면 마치 에버랜드가 아닌 꿈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한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바삭함이 살아 있는 로티서리치킨을 맛보며 밴드 공연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곧 홀랜드 빌리지로 떠나 여유로운 여름의 낭만을 즐겨보자.

**1** 홀랜드 빌리지에서 가장 인기 메뉴인 로티서리치킨과 구운 야채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치킨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2** 유럽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홀랜드 빌리지는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기 좋은 장소다.



삼성서울병원과 함께하는

Ask Dr.

건강에 관한 궁금증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더운 여름, 땀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다한증과 목의 이물감으로 고생하는 편도 결석, 담석증을 이겨내기 위한 건강 관리 팁을 소개한다. 여름이면 체력 저하로 고생하는 독자들을 위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 음식, 도라지를 이용한 레서피를 소개한다.

**Editor** 최정원 Choi Jung Won  
**Photographer** 김건희 Kim Gun Hee  
**Food & Styling** 박용일 Park Yong Il Stylish Yong  
**Assistant** 남경현 Nam Kyung Hyun  
**Cooperation** 박지혜 Park Ji Hye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임상강사  
 박주경 Park Joo Kyung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홍상덕 Hong Sang Duk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Q** 제가 여름만 되면 얼굴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땀 때문에 주제를 하지 못하고  
합니다. 손과 발이나 몸에는 그다지 땀이 많지 않지만 얼굴에서만은 유독 땀이  
많이 납니다. 혹시 이처럼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이 체질적인 문제를 넘어  
질병이 아닐까, 또는 흔히 말하는 다한증은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다한증의  
원인과 대처법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석(경기도 의정부시 오목포)

**A** 땀은 체온 조절, 감정 스트레스 등의 생리적 기전에 의해 발생하지만 과도할 경우  
개인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과도한 땀 분비를 다한증이라고 하며 전신적으로  
땀이 많을 경우 전신 다한증, 신체 일부에만 국한될 경우 국소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전신에 땀이 많을 경우 감염이나 내분비 질환 등의 전신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나  
특정 부위에 집중해서 땀이 나는 국소 다한증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감, 부교감 신경계의 복잡한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지만  
그 이상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땀샘은 주로 겨드랑이, 손과 발바닥에 집중  
분포를 하고 있어 국소 다한증이 겨드랑이나 손, 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에  
따라 얼굴에만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로는 알루미늄염 성분으로된 국소  
도포제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데, 바를 경우 화끈거리거나 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 겨드랑이나 손, 발바닥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보툴리눔독소 주사입니다. 흔히 미용 시술로만 알고 있지만 땀샘 운동  
신경 섬유를 억제시켜 땀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1회 시술로 4~7개월 효과가  
지속됩니다. 다만 주사 비용이 도포제에 비해 비싸고 주사 맞을 때 통증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이 되면 땀이 더 많이 나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봄에 헤어 라인을 따라서 보툴리눔 주사를 맞기 위해 피부과 외래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손, 발바닥 다한증에 많이 시행되는 내시경적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이  
있습니다. 치료 성공률이 높지만 보상성 다한증이라 하여 치료 부위에는 땀이 줄지만  
다른 부위에 보상성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혜(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임상강사)

**Q** 성대결절로 인해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심했는데 약물 치료로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성대결절 이전부터  
목에 심한 이물감이 있고 몇 달에 한 번씩 편도결석이란 것이 입에서 나왔었어요.  
지금도 목의 이물감은 여전하고 입을 벌려 보면 편도에 하나 생긴 것이 보여서 좋지가  
않아요. 편도결석을 없애는 방법과 예방하는 방법,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박전영(경기도 시흥시 신현동)

**A** 목의 이물감과 편도결석이 있으시군요. 일단, 편도결석으로 인하여 목의  
이물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편도결석의 가장 흔한 증상은  
구취(입냄새)이며, 두 번째 흔한 증상은 동반된 편도염으로 인한 간헐적인 목의  
통증입니다. 목의 이물감은 편도결석이 매우 크거나 편도가 매우 큰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적으므로, 이물감이 불편하시다면 후두 내시경을 시행하여  
위산역류에 의한 후두염 등이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편도결석은 약 10%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원인이 확실치  
않으나, 최근에는 생물막(세균 등이 군집하여 형성)이 원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구강위생이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소금물로 혹은  
시중에 파는 가글액을 이용하여 가글링을 하는 것이 예방 및 치료에 1차적으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편도의 선화(crypt, 편도내에 파인 홈)가 커서 편도 결석이 자주 발생하고,  
구취가 심하며, 가글 등의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 수술적으로 편도를  
절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홍상덕(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TIP** 면역력의 강자, 도라지

도라지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폐와 기관지를 강화하는 등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음식이다. 특히 한방에서는 감기나 천식, 기침, 가래 등을 없애는 데 좋은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평소 자주 편도선염이 발생한다면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도라지는 가능하게 찌개  
물에 담가서 우려낸 후 생채로 하거나 가법게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는 등 다양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라지는 잔뿌리가 비교적 많고 원뿌리로 갈라진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도라지  
손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특유의 쓴 맛을 제거하는 것이다. 도라지를 손질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저분한 잔뿌리를 제거하고 칼로 굵어 껍질을 벗긴 뒤 물에 행구어야 한다. 껍질을 벗긴 도라지는 잘게  
찢어서 소금을 뿌리고 주물러 쓴맛을 뺀 뒤 물에 담가 놓으면 된다. 도라지를 보관할 때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신문지에 싸서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Q** 아내가 출산 후 담석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밤마다 통증이 찾아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담석증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박주경(영기도 용인시 기흥구)

**A** 담낭(쓸개)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시켰다가 음식물이 십이지장에 도달할 때 담즙을 분비,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간 또는 담낭에서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관을 담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담석증은 이러한 담낭과 담관에 담즙의 구성성분들이 돌같이 굳어진 결정이 생기는 병입니다. 담석에 의한 특징적인 담도성 통증은 심와부 (명치부위) 또는 우상복부에 발생하며, 서서히 강도가 증가하여 최고조에 이른 후 일정한 강도로 30분 이상 지속되다가 서서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통증은 대략 30분에서 5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5시간 이상 지속되면 급성 담낭염으로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구역이나 구토가 동반될 수 있고 양측 견갑골 사이, 우측 견갑골 하방 등으로 방사될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이라도 특징적인 증상이 있었던 담석은 2/3에서 통증이 재발되며 특히 처음 담석이 발견된 몇 년 동안 통증의 재발이 많고 합병증도 매년 1~5%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징적인 담도성 통증을 동반한 담석은 증상의 재발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증상이 있는 담석증에 좋은 음식이나 효과가 뚜렷한 약제는 알려져 있는 바가 없으므로 증상이 없다면 치료를 권장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있을 경우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는 수술적 방법, 담낭제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신과 담석 임신 상태에서는 담낭의 운동성이 저하되고 담즙이 담석 포화되어 응결되기 쉬운 상태로 되기 때문에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즉, 많은 역학연구를 통해서 임신 시 담석의 위험도가 증가함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험도는 임신 후 4~5년 가량 높게 지속되다가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임신부를 살펴보면 임신이 시행한 복부 초음파에서 담석이나 담즙 찌꺼기(Biliary sludge)가 임신 기간 동안 축적되었다가 분만 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중 혹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증상이 있을 경우 즉, 담도성 통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의 산모일 경우에는 수술 시기를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상의하여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임신 2기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질문자의 아내가 담성 통증이 의심되고 출산 후라고 한다면 더욱 소화기내과 hepatobiliary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담성 통증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담낭절제술이 가장 바람직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주경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 'Ask Dr.'에 질문을 보내주신 분 중 당첨된 분께는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2매를 보내드립니다.



#### 알싸한 맛이 매력인 도라지 요리

##### 도라지초계탕

재료 도라지 6개, 달걀물 2개분량, 소금, 후추 약간씩, 올리브오일 적당량, 대파 1대, 영계 2마리, 황기 1개, 통후추 1큰술, 마른 홍고추 2개, 월계수 잎 3장, 물 적당량, 국간장 2큰술

- 1 도라지는 껍질을 벗긴 후 깨끗이 씻어 반으로 길게 자른 후 3등분한다.
- 2 볼에 달걀물에 소금으로 간을 한 후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얇게 지단을 부쳐 1x10cm 크기로 자른다.
- 3 대파는 깨끗이 씻어 0.2cm 크기로 동글게 자른다.
- 4 닭은 내장과 기름부분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냄비에 물을 부은 후 넣어 ①의 도라지와 마늘, 황기, 통후추, 마른홍고추, 월계수를 넣어 1시간 정도 푹 삶는다.
- 5 삶아진 ④의 닭은 건져 살을 발라 적당한 크기로 찢어주고 육수는 면보에 여러 번 걸러 기름기를 빼준 후 국간장으로 간한다.
- 6 그릇에 ⑤의 닭과 ④의 도라지, ②의 달걀지단, ③의 대파를 가지런히 넣고 ⑥의 육수를 부어 후추를 뿌린다.

##### 도라지 & 겹절콩 유자 냉채

주재료 도라지 120g, 겹절콩 80g, 굵은 소금 약간, 물 적당량  
소스 유자청 4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소금 약간, 검은깨

- 1 도라지는 껍질을 벗긴 후 깨끗이 씻어 반으로 길게 자른 후 2등분하고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어 볼에 물을 붓고 1시간 정도 담가준다.
- 2 냄비에 물을 붓고 끓으면 겹절콩을 넣어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반으로 자른다.
- 3 볼에 분량의 소스 재료를 넣고 고루 섞어 ①의 도라지와 ②의 겹절콩을 넣고 다시 한 번 고루 섞는다.

4인 기준 레서피





# WONDERFUL GIFT SHOP NAVIO

물놀이용품의 모든 것,  
나비오

완벽한 물놀이용품의 집합소, 나비오 매장을 소개한다.

Editor 최정원 Choi Jung Won  
Photographer 류현열 Ryu Hyun Y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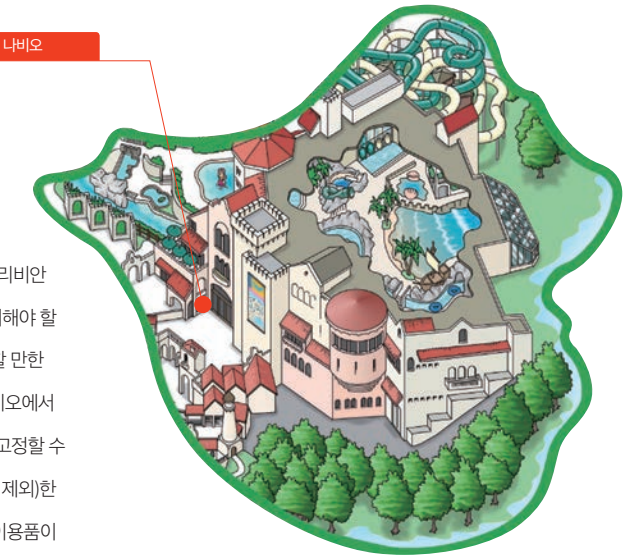
캐리비안 베이 아쿠아텍센터 내에 위치한 나비오는 국내 최대의 수영용품 습으로 다양한 물놀이용품을 구비하고 있어 캐리비안 베이로 즐기는 고객이라면 한번쯤은 이용하게 되는 핫 스팟이다.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들이 생긴다. 수영복이 찢어진다면가 수영모, 물안경 등을 놓고 오는 등... 그렇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길! 이에 대처할 만한 모든 것이 나비오에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여름 시즌이면 가장 많은 판매율을 보이는 것이 방수 팩인데, 나비오에서 판매하는 방수 팩은 카메라,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용품을 넣을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에 강력 벨크로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에 아레나, 레노마 등 세련된 브랜드의 수영복을 30~50% 할인(단, 신상품은 제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수영복 판매율도 높은 편이다. 여기에 양장맞은 프린트로 시선을 사로잡는 어린이 수영복 및 물놀이용품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 애써 힘들게 챙겨가지 않아도 캐리비안 베이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캐리비안풍 인테리어의 넓은 매장에서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고 싶다면 나비오 매장을 추천한다.



1 최신 유행 아이템인 래시가드 수영복을 다양하게 구비에 놓았다.

2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튜브는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3 어린이 수영복 및 물놀이용품을 고루 갖춰 어린이 고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



# SMART TALK

소셜 미디어 채널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는 에버랜드 소셜 미디어 채널을 소개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에버랜드

### facebook

여기가 그 유명한 에버랜드 페이스북?  
국내 단일 기업 가운데 268만 명의 최대 '친구'를  
보유한 에버랜드 페이스북! 지금 곧 에버랜드  
페이스북과 친구가 되어 확인해보세요~!



QR코드 스캔 또는  
Facebook.com/witheverland  
로 접속해 주세요!

(왼쪽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더욱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 KakaoStory

에버랜드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카카오토리  
재미와 감동, 다양한 이벤트로 가득한 카카오토리는  
참여해주신 고객을 위한 풍성한 선물까지 마련돼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카카오토리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재미도 두 배! 신나는 혜택까지 두 배!

#### 1 URL로 접속하기

http://everlandevent.com/kakao/plus  
(모바일에서만 가능)

#### 2 카카오토리에서 접속하기

친구 > 스토리 아이디로 친구찾기 > '에버랜드'

### BLOG

에버랜드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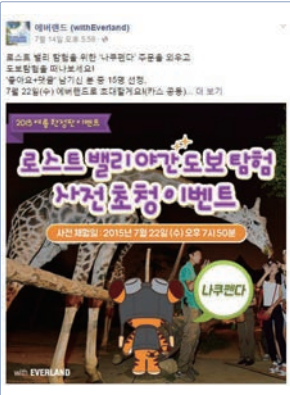
에버랜드 공식 홍보 도우미, '위드에버랜드 기자단'이  
들려주는 리얼 체험 후기와 다양한 꿀 정보들♡  
에버랜드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 보세요!

#### 1 검색창에 '에버랜드 블로그' 검색하기

#### 2 URL로 접속하기

www.witheverland.com

## 에버랜드로 떠나기 전, SNS에 주목해 보자



1

#### 1 알뜰한 나를 위해 검색은 필수!

미리 알아두면 좋은 꿀 혜택과 할인 이벤트가  
매일매일 업로드됩니다.

#### 2 '좋아요' 또는 댓글 한 번으로 대박 행운이 한가득!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와 풍성한 경품 이벤트까지.  
에버랜드 페이스북과 카카오토리에 지금 당장  
접속해보세요~!



2

#### 3 만화로 즐기는 유익함! '에버툰'

에버랜드에서 실제 겪은 손님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화 '에버툰'. 재미있는 사연, 감동적인  
사연들을 만화로 만나보세요!



3

## 에버랜드 SNS

축제·동물·퍼레이드 등 에버랜드 리조트의 다양한  
소식이 사진, 영상과 함께 업데이트된다.

twitter

www.twitter.com/witheverland

Instagram

www.instagram.com/witheverland

YouTube

www.youtube.com/witheverland



**하나, <자연과 꿈>에 후기 보내기**

어느 칼럼이 좋았고 또 아쉬웠는지,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등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당첨자 2분에게는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2매를 증정합니다.

**둘, 건강에 관한 궁금증 Ask Dr.로 문의하세요**

Ask Dr.에 건강과 관련된 상담 질문을 보내주세요. 삼성서울병원 교수님들께서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채택된 3분께는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2매를 증정합니다.

**EVENT <자연과 꿈> 독자 참여 이벤트****BIG 4**

<자연과 꿈>에는 애독자를 위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이벤트에 응모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다양한 이벤트 가운데 응모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해 도전해보세요.

4가지 이벤트에 모두 응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 2015년 8월 28일 **보내주실 곳** nature.dream@samsung.com

※ 응모한 독자 정보는 다른 용도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셋, 그림 속 주인공을 맞춰라!**

그림 속 주인공은 이번 호 'The Plants' 칼럼에 등장한 식물입니다. 남미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은 무엇일까요? 이 식물이 등장한 기사의 쪽수도 함께 적어주세요. 채택된 5분께는 <자연과 꿈>에서 준비한 캐릭터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정답** 〇〇〇〇〇〇, 〇〇쪽

**넷, 'The Book' 책 속에 책이 있다!**

<자연과 꿈>은 책 읽기를 장려하고자 'The Book'(12~13쪽) 칼럼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에게 여행을 꿈꾸게 하는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아래 문제를 모두 맞춘 5분을 선정해 기사에 소개된 책 중 한 권을 선물해 드립니다.

- ① 유럽 여행을 통해 드라마틱한 모녀의 관계 변화를 그린 여행기 <000, 000>
- ② 프랑스 남자와 결혼한 저자 김미영의 실크로드 횡단 도전기 <0000 00000>
- ③ 대한민국 간절곳에서 포르투갈 호카곳까지 총 25개국, 163개 도시를 달린 350일간의 여행 기록을 담은 <0000, 00 00 0000>

**QR CODE****38P**

썸머 스플래쉬 축제



물 폭탄이 빵빵 터지는 시원함 속에서 물총 싸움이 벌어진다! 여기에 관객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게임과 레니와 잭의 신나는 댄스를 즐길 수 있는 2015 썸머 스플래쉬 축제 'Jack's splash 퍼레이드' 속으로 지금 곧 빠져 볼까요?

**Congratulations**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독자 의견****01**

동물에 관심이 많은 큰아이와 함께 'Zootopia News'를 꼭 챙겨 읽습니다. 놀이기구보다 동물이 더 좋다는 우리 아이 덕분에 각 동물의 특징까지 상세히 나온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되네요.  
권성현(대구시 동구 율하동로)

**02**

올 여름휴가로 캠핑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에버랜드에 캠핑닉 빌리지가 생겼다는 기사를 읽고 반가운 마음이 앞서네요. 당장 예약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김미경(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03**

아빠가 즐겨보시는 <자연과 꿈>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어요. 에버랜드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동물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제 꿈이 수의사인데 앞으로도 동물에 관한 좋은 기사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손민지(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04**

우연히 에버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자연과 꿈>. 놀이동산의 대표 주자답게 아기자기한 매력이 묻어나는 이미지와 기사 덕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예진(경기도 일산동구 장항동)

**05**

5+6월호 <Travel> 기사를 보며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이국적인 비경을 사진으로나마 감상할 수 있어서 답답한 가슴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모든 곳을 다 가볼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주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장우익(강원도 동해시 부곡2길)

**EVENT****건강에 대한 궁금증, Ask Dr.**

Ask Dr.에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3분에게는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2매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남궁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박진영** 경기도 시흥시 신원동  
**조석**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EVENT****그림 속 주인공을 맞춰라!****지난 호 정답**

**A** 램즈이어, 47쪽

**당첨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채택된 3분께는 <자연과 꿈>에서 준비한 캐릭터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김은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임정아** 경기도 안성시 사형길  
**전기영**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EVENT****'The Book' 책 속에 책이 있다!****지난 호 정답**

**A** 모든 것의 이름으로, 시간의 옷, 궁극의 아이

**당첨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채택된 5분께는 기사에 소개된 책을 보내드립니다.

**서민영** 전남 여주시 여서로  
**이지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오현진** 전북 군산시 구암동  
**우정렬**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사로  
**우향화**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 Photo Event

## 사진 이벤트

에버랜드만큼 멋진 포토 존은 없을 것입니다. 에버랜드에서 촬영한 여러분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페이스북에 있는 에버랜드 포토 앨범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선정된 모든 분들에게는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을 2매씩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 응모한 독자 정보는 다른 용도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응모된 사진은 <자연과 꿈> 외에 에버랜드 소셜미디어 채널과 50년 온라인 사사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상시 **보내주실 곳** [www.samsungeverland.com/sns/photo](http://www.samsungeverland.com/sns/photo),  
[nature.dream@samsung.com](mailto:nature.dream@samsung.com)

평소에 감춰둔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  
사진 이벤트로 오늘은 나도 포토그래퍼!

## TIP

### 사진 당첨 노하우

- ① 에버랜드 축제의 현장에서 멋진 포즈를 연출한 사진
- ② 세상에 이런 일이! 찰나의 순간을 촬영한 사진
- ③ 하품하는 토끼, 윙크하는 침팬지, 인사하는 곰 등 동물들의 재치 있고 기발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임윤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김은성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정지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모험에는 힘이 있다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용기

그것은 온몸으로 배워야 하는 것

거친 야생을 달려보지 않고는 얻지 못하는 것

모험이 아이들을 용감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노는 것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노는 것이 힘이다

# LOST VALLEY

에버랜드 로스트밸리의 동물들이 더 가까워집니다

생생체험교실 사람과 만날 기회가 적었던 야생동물들과 오감으로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 / 백사이드체험 백사자, 코볼스, 기린의 비밀스러운 안식처 드디어 공개



EVERLAND  
RESORT